



황금탑의 나라 미얀마

금강불교회

소개글

성공적인 여행은 동행하는 사람들이 좋아야 하며, 볼거리, 잡자리, 먹거리가 좋아야 한다. 거기에 덧붙여 가이드가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행 전체가 '앙꼬 없는 찐빵' 이 되고 만다. 이 모두를 만족하는 여행을 하기는 극히 어렵다.

그 동안 금강회는 2002년 7월 중국 구화산-항주-소주-상해 여행을 시작으로 2004년 1월 앙코르와트-베트남, 2006년 1월 인도 불교성지, 2007년 8월 실�크로드, 2009년 1월 일본 나라-교토를 다녀왔다. 그 중에서는 앙코르와트-베트남 여행이 제일 좋았던 것 같다. 2011년 1월 미얀마는 여섯 번째 해외 성지 순례이다. 햇수로 10년, 방문국 6개국, 여행 기간 총 46일, 참가 인원 총 122명(중복 포함)이다. 여섯 번째의 여행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 것인가?

목차

1	미얀마 기행문 1일째/ 인천에서 양곤까지 - 유선철	4
2	미얀마 기행문 2일째/ 바간에서 1 - 이금미	8
3	미얀마 기행문 2일째/바간에서 2 - 이금미	17
4	미얀마 기행문 3일째/ 만달레이 1 - 권오웅	25
5	미얀마 기행문 3일째/ 만달레이 2 - 권오웅	30
6	미얀마 기행문 4일째 / 헤호 1 - 고한희	36
7	미얀마 기행문 4일째 / 헤호 2 - 고한희	41
8	미얀마 기행문 5일째 / 양곤 로카찬다와 차욱탓지 파고다 - 정경지	46
9	미얀마 기행문 6일째/ 양곤 1 - 류연식	52
10	미얀마 기행문 6일째/ 양곤 2 - 류연식	57

2011년 1월 23일 일요일 / 글쓴이 유선철 / 인천 - 양곤

“당신은 왜 여행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 살아있음을 느끼기, 일상으로부터 탈출하기, 일상의 소중함 깨닫기, 재충전, 해방감, 나를 찾기, 영혼의 정화, 나를 둘러싼 장벽 허물기, 또 다른 나를 만나기, 삶에 대한 성찰, 새로운 것과의 만남, 도전 정신 기르기,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 추억 만들기, 자연의 소중함 깨닫기, 겸손과 감사의 마음 배우기, 세상과의 소통.....

(여행의 숲을 여행하다/ 김재기 저)

여행은 일상과의 단절이다. 이 단절은 현실을 잠시 잊고 새로운 세계에 몰입하게 한다. 여행하는 동안 낯선 곳에서 만나는 사람과 유적과 풍경들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설렘과 그리움을 안겨준다. 이것이 재충전이다. 방학이 되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것은 잠시라도 일상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자 함이다. 눈 앞의 현실과 그것으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재창조라는 변증법이 숨어있는 것이 바로 여행이다.

여행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기대와 긴장을 가져다주고 길거리와 시장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준다. 이방인과의 소통은 호기심이 발동되어 흥미롭고 친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그리고 오래도록 남는 이야기거리..... 그래서 여행은 계속 되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 금강회에서 정한 목적지는 미얀마이다. 여행기간은 2011년 1월 23일부터 1월 29일 (5박 7일)이다.

어느 절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탑이 많은 불교 국가, 미얀마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저 가볍게 흘려버렸었다. 뭐 그리 대단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탑만 많이 있다면 참 지루하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미얀마의 살림살이가 우리보다 못하다는 알량한 생각도 있었음을 부정하기가 어렵다. 어쨌든 미얀마는 처음부터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 매력적인 여행지는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 금강회에서 일본의 고찰을 순례한 후에 미얀마에 가기로 정했으므로 그냥 따르게 된 것일 뿐.

지도법사 흥선스님께서 불교중앙박물관장으로 부임하시는 바람에 여행을 함께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처음 여행을 신청한 사람은 20명이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호대, 이수희 법무님과 박병희 법무님의 어머니와 딸, 김창순 법무님이 안타깝게도 명단에서 이름을 내려놓게 되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선철, 이금미, 백승환, 정경지, 이경택, 윤미영, 권오웅, 류연식, 김정희, 양정민, 고한희, 권영단, 이필임, 이정수 법무님의 14명이 출발하게 되었다.

여행사는 투어미얀마, 현지 진행을 중심으로 하는 랜드여행사이다. 그래서 다른 여행사보다 많이 싼 경비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서울사무소 송경필 소장님과 많은 통화를 했는데 아주 친절하고 열성적인 사람이었다. 나보다 나이가 많고 키도 크신 분이라는 상상을 했었는데 출발 당일에 만나 보니 생각과 달리 나보다 젊은 분이었다.

이번 여행은 준비 과정이 특히 어려웠다. 무엇보다 항공권을 구하기가 힘들어 일정을 미루게 되었고 그 바람에 결원도 많이 생기게 되어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다.

미얀마

1983년 우리나라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전두환 대통령이 아웅산 국립묘지에 참배했을 때 북한 공무원이 미리 설치해놓은 폭발물이

터져 서석준 부총리를 비롯한 16명이 순직했던 나라,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로 유명한 나라, 국민 대부분이 불교를 믿고 있는 황금 불탑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미얀마이다.

공식적인 국명은 미얀마 연방공화국, 어릴 적 지리책에서 버마라고 배운 나라이다. 1988년 민주화 시위 이후, 1989년 미얀마의 집권 군부가 버마족 외에 다른 소수민족도 아우른다는 차원에서 미얀마로 국호를 변경하였다. 현재도 민주화운동을 하는 반체제인사들은 군사정권에서 붙인 국명인 미얀마와 현 국기를 거부하고, 버마라는 호칭과 옛 국기를 고집하고 있다.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부로는 태국 및 라오스, 북부로는 중국, 서부로는 인도 및 방글라데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다.

면적은 67만km²로 한반도의 약 3.1배에 해당하며 수도는 네피도이다. 인구는 5,600만명이고 종족은 버마족 68%, 소수족 25%, 기타(중국, 인도 등) 5%이다. 종교는 불교가 89%를 차지하고 있다.

1월 23일 오전 4시 김천고등학교 정문에서 인천공항을 향하여 버스가 출발했다. 전날의 불면 때문에 모두 까칠한 얼굴이었으나 새로운 여행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마음은 한껏 들떠 있었다. 가는 길에 잠시 휴게소에 들러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고한희 법무님이 보시 하셨다.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문상도 못했는데, 우리 회에서 조화를 보내주어 고맙다고 아침을 사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오전 8시가 못되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3층 J카운터에서 송경필 소장을 만나 여권과 탑승권을 받고 주의사항을 전달받았다. 투어미얀마 본사에 전해줄 컵라면 등 5박스의 물품과 미화 3,700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도 받았다.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송금이 안 되는 것이었다. 짐을 부치고 보안 검색, 출국 심사를 마치고 잠시 면세점을 둘러본 후 타이항공의 TG629기에 올랐다. 비행기는 3시간 반을 비행하여 홍콩을 경유한 후 현지시간 16시 45분에 방콕에 도착했다.(한국보다 2시간 느림) 지체할 틈도 없이 미얀마 양곤으로 향하는 비행기로 환승하였는데 한 시간 정도를 비행한 후 양곤의 밍글라돈 공항에 현지시간 17시 10분에 도착했다.(한국보다 2시간 30분 느림)

공항에는 허철 이사와 직원들이 나와 한국에서 보내온 물품들을 받아갔다. 박순호 가이드 -투어미얀마의 이사- 의 안내로 버스에 올라 저녁 식사를 한국인 식당에서 하게 되었다. 상추쌈과 된장국으로 맛있게 저녁을 먹고 세도나 호텔로 향했다. 대형풀장이 있고 336실을 갖춘 고급 호텔이다. 내일 아침에는 바간으로 이동한다. 이동 수단은 항공기이다. 이번 여행에서 지역 간 이동하는 로컬 항공을 네 번이나 이용하게 된다.



양곤 세도나 호텔 뒷쪽 정경

성공적인 여행은 동행하는 사람들이 좋아야 하며, 볼거리, 잠자리, 먹거리가 좋아야 한다. 거기에 덧붙여 가이드가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행 전체가 ‘양고 없는 찌뽕’ 이 되고 만다. 이 모두를 만족하는 여행을 하기는 극히 어렵다.

그 동안 금강희는 2002년 7월 중국 구화산-항주-소주-상해 여행을 시작으로 2004년 1월 양코르와트-베트남, 2006년 1월 인도 불교성지, 2007년 8월 실크로드, 2009년 1월 일본 나라-교토를 다녀왔다. 그 중에서는 양코르와트-베트남 여행이 제일 좋았던 것 같다.

2011년 1월 미얀마는 여섯 번째 해외 성지 순례이다. 햇수로 10년, 방문국 6개국, 여행 기간 총 46일, 참가 인원 총 122명(중복 포함)이다. 여섯 번째의 여행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 것인가?

사실 미얀마에 도착해서도 우리 여행이 이렇게 풍성하고 만족스런 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진 않았다. 그런데 하루 이를 지나면서 보니 박순호 가이드는 무언가 달랐다. 손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대하는 듯 했고, 한 번 보고 말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볼 사람처럼 우리들을 이끌었다. 사람 사이에서 감동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적지 않게 놀라고 그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 다양한 인생 경험, 실패와 좌절의 역정, 다양한 직업, 해박한 지식, 놀라운 화술, 훌륭한 법문 등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덕분에 여행은 ‘생각의 산파’ 라는 말에 대해 더욱 공감하게 되었고 인간과 삶과 세계에 대해 깊게 성찰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거듭 두 손 모아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제주 띠 바대!



Union of MYANMAR



2011년 1월 24일 월요일/ 글쓴이이금미/바간

밍글라바

간밤에 몹시 추웠다. 미얀마는 열대몬순기후이다. 겨울철이고 건기에 해당하는 요즘, 한낮은 30℃의 따가운 날씨이고 밤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우리나라 초가을의 날씨와 같다. 미얀마는 난방이 없다. 침대 위에 깔아놓은 흰 시트는섬뚱하리 만치 차갑다.초저녁 샤워 후 살짝 틀어놓고 잊어버린 에어컨의 냉기로 밤 내내 몹시도 추웠다. 내복을 입고, 목까지 오는 긴 티이를 입고, 양말을 신고, 이불을 뒤집어쓰고서도 덜덜 떨다가 새벽에 일어났다. 남편은 여행 전날 한 숨도 자지 못하다가 어제 미얀마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쓰러져 곤하게 잤다. 아침이 되자 남편에게 몸살감기와 설사 증세가 나타났다. 하지만 쉽 없이 낫선 곳으로 떠나야하는 것이 여행자의 운명 아닌가? 남편이 아프다니 회원님들이 다투어서 종합감기약, 한방감기약, 지사제, 직접 만든 백초 엑기스를 들고 왔다.

신발끈을 조이고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오전 6시 10분, 세도나호텔을 출발했다.

로칼 비행기를 타고 바간-낭우공항에 내렸다.

이번 미얀마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바간’ 이다. 바간은 천 년 전의 버마인에 의한 미얀마 최초의 통일왕조(1044년~1287년)의 수도이다. 미얀마 중부의 이라와디강가 42km² 면적에 2,500여개의 탑들이 보존되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앙코르유적,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유적과 함께 세계 3대 불교 유적지로 손꼽히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대부분의 유적들은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동원해서 만든 피의 유적이지만 바간의 탑들은 대다수가 왕족이나 민중들의 간절한 염원과 신심으로 이루어진 자발적인 탑이어서 더욱 아름답고 숭고하다. 바간 탑을 순례하는 데 입장료는 10불이다.



--- 바간, 낭우 공항---

공항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박순호 가이드(법명이 '개산' 이기에 여행 내내 우리는 개산거사님으로 불렀다.)는 미얀마가 신심 깊은 불교국가가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미얀마 건국 설화에 따르면 석가모니부처님 당시 강대국인 코살라국이 석가족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코살라국의 강대한 힘에 밀려 석가족은 공주의 몸종을 몰래 코살라국 왕에게 시집을 보냈고, 후에 몸종의 몸에서 비유리왕자가 태어납니다. 비유리왕자가 장성한 후에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카필라국에 쳐들어가서 석가족을 멸망시킵니다. 전쟁의 와중에 겨우 살아난 몇몇 석가족이 도망쳐서 나라를 세운 곳이 바로 미얀마 북부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부처님이 성도 후에 최초로 설법을 한 사람이 미얀마 상인 두 명입니다. 그러니 이곳 미얀마는 불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나리입니다. 미얀마는 군부독재의 나라로서 흔히 치안이 불안한 곳이라고 하나 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가난해도 부처님을 깊이 믿으면서 선량하게 살아갑니다.”



--- 보리수 아래서, 박순호 가이드와 함께---

〈낭우(Nyaung Oo)재래시장〉

공항에 내려서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낭우 재래시장이다. 우리나라 60년대의 풍경과 비슷하다. 순박한 미얀마인들이 펼쳐놓은 것은 주로 자잘한 과일과 야채들로 아주 풍성하다. 여인들은 하나같이 볼에 파운데이션 같은 화장을 했다. 숯돌에 ‘타나카’ 라는 나무를 갈면 연갈색 액체가 나오는데 이것을 얼굴에 바르면 강렬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결이 고와진다고 한다. 그리고 ‘라페통’ 이라는 차나물이 있다. 찻잎을 옹기에 넣고 1년 이상 숙성한 것으로 우리나라 김치처럼 매 끼니마다 미얀마인들이 즐겨먹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남자, 여자를 통틀어 입는 월남치마 같은 ‘론지’ 파는 가게가 줄줄이 보인다. 우리 여행팀에도 많은 여인들이 론지를 사서 입고 다녔다. 아차, 동남아시아인 같이 피부가 까무잡잡한 남편에게도 하나 사줄 걸 그랬다. 기막히게 어울릴텐데 말이다...!



--- 타나카 나무---

〈쉐지곤(ShweZigon)〉

첫 번째 탑 순례지는 쉐지곤이다. 쉐지곤이란 뜻은 ‘황금의 모래언덕’ 이란 뜻이다.

여기서부터 일몰 무렵의 순례가 끝날 때까지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쉐지곤은 바간왕조의 아노리타왕이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치사리를 하얀 코끼리 등에 업고 오다가 코끼리가 멈춘 이라와디강 황금빛 모래톱에 세운 탑이다. 이 후 이 탑은 미얀마 전역의 탑들의 표본이 된다. 벽돌을 구워서 탑을 만들고 회칠과 청동으로 입히고 옷칠을 한 후 금으로 바깥을 둘러쌌다. 사각의 3단 기단 위에 발우를 얹어놓은 듯 한 모양이다. 탑 주변에는 화려한 꽃모양의 촛대같은 장엄물이 있고 사각의 모서리마다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인 사자(마누피하)가 수호신처럼 서있다. 탑 주변으로 많은 부속건물들이 있다. ‘간탄’ 이라고 불리는 두툼한 미얀마종, 사문유관을 조각한 건물, 정령들을 모신 사당, 발우에 손을 넣고 해를 바라보는 두타행이 철저했다는 스님상들이 있다. 미얀마인들의 열렬하고 순박한 신앙심을 읽을 수 있는 탑이다. 정신이 물질을 압도하는 마지막 남은 은자의 땅이 바로 미얀마라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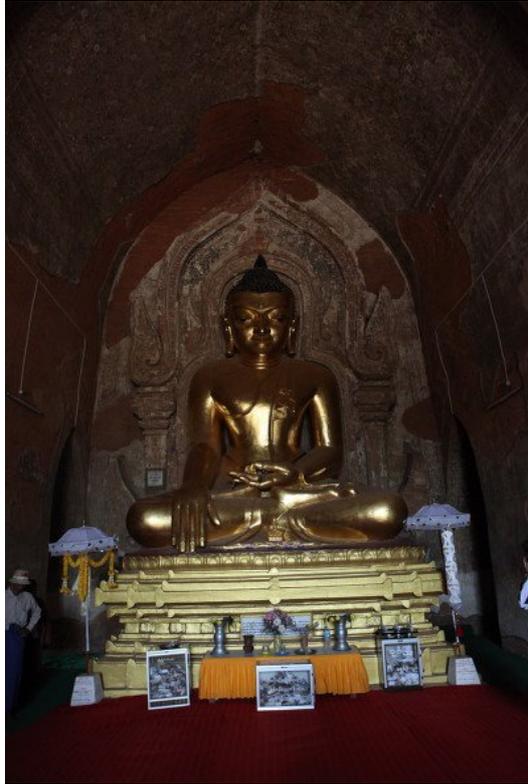


〈틸로민로(Htilominlo)〉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이층의 사원이다. 마치 중세 유럽 우아한 성당 건물을 보는 듯하다.

바간 왕조의 8대 왕인 나다웅미아가 왕자의 신분일 때, 선왕이 5명의 왕자들 중에 우산을 던져 왕으로 결정했다고 ‘틸로민로(우산의 뜻대로)’ 라고 한다. 왕이 되었을 때 우산이 멈춘 곳에 세운 사원이 틸로민로사원이라고 전한다. 내부의 사면에 각각 불상이 한 분씩 모셔져 있고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사원 외부의 벽에는 아름다운 스투코장식이 있고 입구 양쪽에는 문지기 수호령인 ‘드발라’ 가 한 쪽 무릎을 세운 채 앉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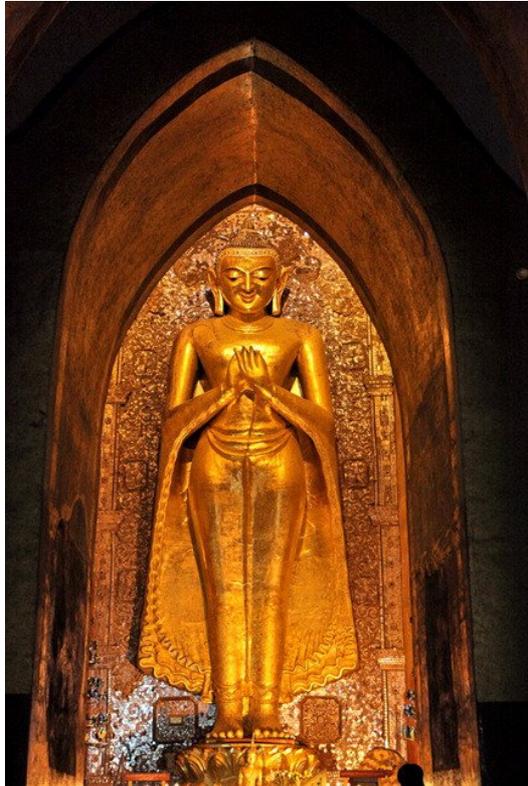




--- 문지기 수호령, 드발라 ---

〈아난다(Ananda)〉

바간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사랑받는 사원 중에 하나이다. 히말라야 동굴 사원을 본떠서 만들었다 한다. 금빛 찬란한 탑신과 사방으로 나있는 돌출 출입구에 수많은 조각들을 장식하여 종교적 장엄과 함께 화려한 느낌을 주는 사원이다. 사원 안쪽과 바깥쪽 통로에는 수많은 벽감들이 마치 벌집처럼 뚫려있다. 벽감에는 많은 좌불상과 석가모니불의 생애가 표현되어 있다. 입구에는 티크로 만든 거대하고 두툼한 나무문이 있다. 나무문은 식물장식을 한 빛살격자무늬로 고풍스럽게 보인다. 서쪽 출입구 앞에는 거대한 불족적이 있다. 발가락의 지문은 동그랗게 겹겹이 표현되었고, 발바닥에는 108개의 작은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가득하다.



태양이 높게 치솟자 햇살은 사금파리같이 날카로웠다. 얼굴도, 발바닥도 불에 데인 듯 몹시도 화끈거렸다.
<난다식당>로 이동해서 전통인형극을 감상하면서 현지식으로 점심을 먹었다.



--- 난다 식당 ---



--- 난다 식당, 인형극 ---

'트레저 리조트 호텔' 에 짐을 풀고 1시간 동안 낮잠을 즐겼다. 낮잠은 꿀맛이다. 이번 여행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낮잠이다. 수면은 두 개의 피크를 가지는데 낮잠을 자는 사람은 장수한다고 할 만큼 유익하다고 했다. 미얀마 전통 형태의 나지막한 호텔은 조용하고 격조가 있다. 푸른 잔디밭에 부겐벨리아와 줄지어선 무우수가 이국의 낭만을 자아낸다. 무우수는 아쇼카나무라고도 하는데 미얀야마 전역에 많이 보인다.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 무우수아래서 탄생했다고 하는 그 나무이다. 금강회에서 다녀온 인도 날란다대학의 무우수나무 아래서 단체사진 찍은 일이 생각난다. 그새 5년이나 시간이 흘러갔다. 점점 시간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내달린다. 언젠가 우리 스님이 하신 법문처럼 시간이 낭떠러지로 똑 떨어지는 것 같다.



--- 트레저 리조트 호텔 ---





---무우수(아쇼카나무) ---

2011년 1월 24일 월요일 / 글쓴이 이금미 / 바간

오후 2시 반에 <나전칠기공방>에 들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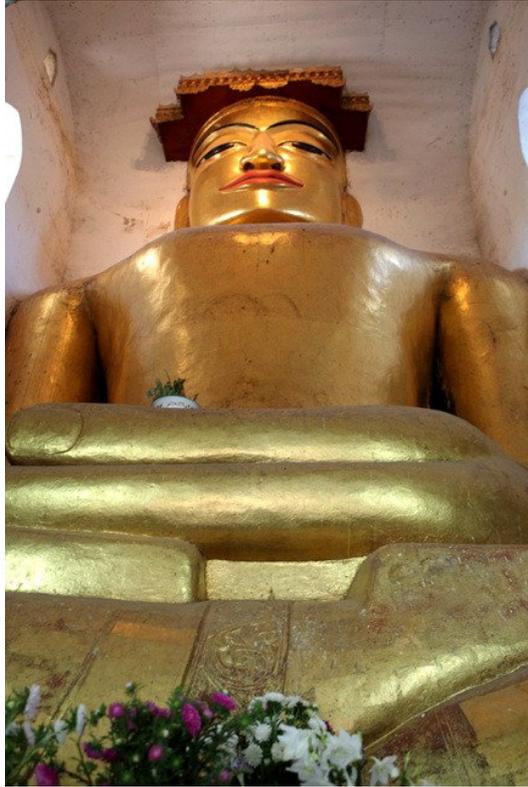
미얀마에 많이 나는 대나무를 잘게 잘라서 진흙으로 도자기를 빚듯 발우나 찻잔, 보석함 등을 만들어서 그 위에 칠기를 하고 여러 가지 문양과 색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수공업이다. 전시장에 들어서서 여섯 개의 컵 받침대가 들어있는 푸른색의 무늬가 예쁜 통을 두 개 샀다. 큰 통이 8달러, 작은 통이 5달러이다. 작품을 만드느라 들인 공력을 생각하니 안쓰러워 한 푼도 깎지 않고 달라는 대로 주고 샀다.



< 마누하 사원(Mhanuha Temple) >

사원이라기보다는 미얀마의 고급스런 전통 주택처럼 보이는 건물이다. 아노리타왕이 남쪽의 타톤왕 마누하에게 경전을 달라고 했으나 거부하자 전쟁을 일으켜서 마누하왕을 감옥에 넣었다. 그 후 탈옥한 마누하왕이 조성한 사원이 마누하사원이다. 거대한 삼존불과 와불상이 인상적이다. 삼존불은 모두 사원에 딱 찬 듯 거대해서 웬지 모르게 답답하다. 특히 가슴 부분이 밖으로 심하게 돌출되었는데 이는 중생들의 고뇌를 가슴으로 다 받아준 결과란다. 삼존불의 뒤편에는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와불상이 있다. 발톱 한 개의 크기가 사람 머리만한 와불상은 길이가 27.5m로 역시 좁은 공간에 딱 차서 답답해 보인다.

사원 주변에는 키가 큰 야자수와 팜나무가 있다. 가이드는 팜나무의 열매즙이 12시간이 넘으면 발효해서 술이 되는데 이 술을 먹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남방의 소승불교와 북방의 대승불교 입장이 다르다고 한다. 여행 마지막 날, 웨산도 파고다 근처 염주 파는 가게에서 가이드가 우리 부부에게 팜나무 부채 한 개를 선물로 사주었다.



-----팜나무 아래서-----

〈난파야(Nanpaya)〉

마누하 사원 곁에는 마누하 왕이 포로로 있는 동안 감옥으로 쓰였던 난파야 사원이 있다. 이 사원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바간에서 보기 힘든 힌두사원이라는 점과 또 하나는 바간 건축의 주 소재였던 벽돌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사암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내부는 격자무늬로 구멍이 뚫린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을 뿐 사방이 짙게 어두컴컴하다. 중앙에는 사방에 기둥

이 세워져 있는데 벽면에는 힌두교의 창조신인 브라흐만이 조각되어 있다. 브라흐만은 인도인이 제일 사랑하는 신이라고 한다.



----브라흐만----

<구바욱지 파고다(Gubyaukgyi pagod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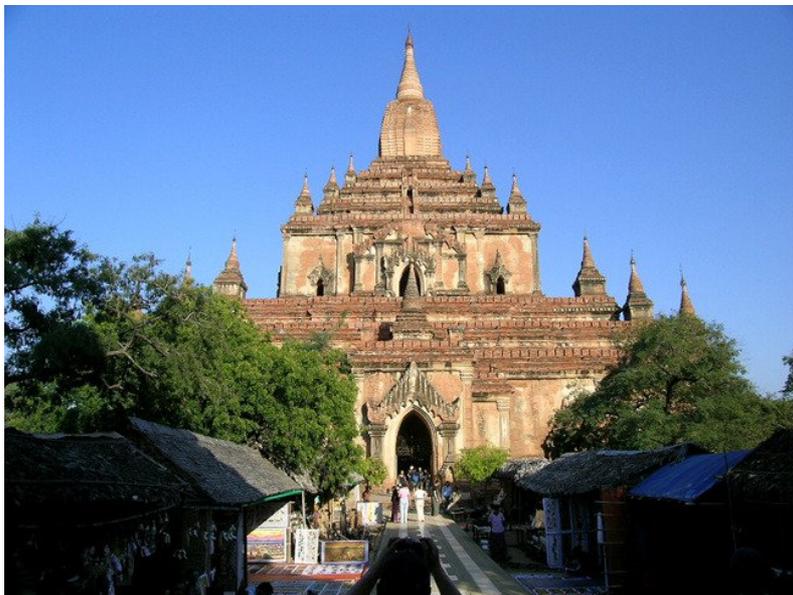
벽화로 유명한 파고다이다. 내부는 굉장히 어둡다. 미얀마인이 전구를 밝혀주어서 벽화를 감상했다. 천장부터 벽면에 프레스코화로 부처님 생애 장면들, 544개의 자타카(부처님 본생담)가 빼곡하게 들어찼다.

파고다 밖에는 미얀마에서는 보기 드문 비석이 하나 서있다. 비석에는 이 파고다의 불사 내역이 적혀있다고 한다. “윤회의 강을 건너서 세세생생 부처님 법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란다. 나도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오늘 함께 여행을 하는 금강회 원님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세세생생 좋은 스승을 만나서 부처님 법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술라마니(Sulama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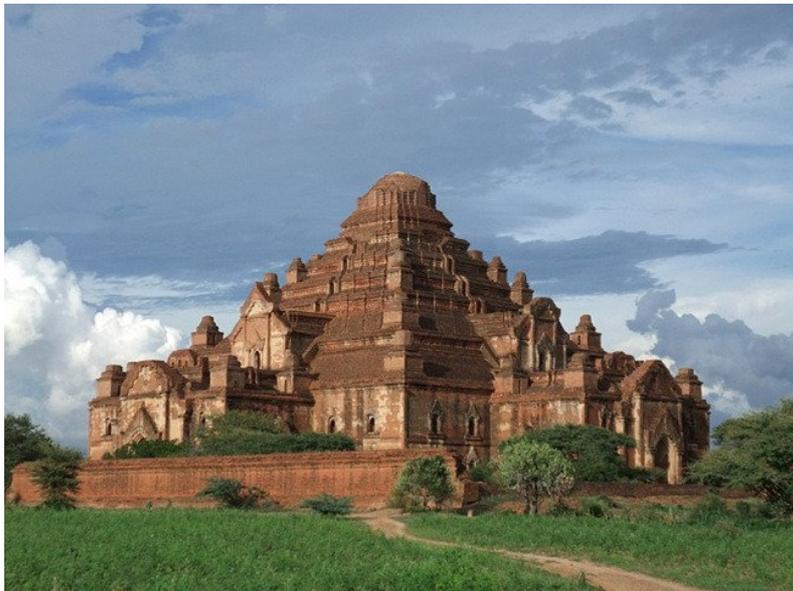
붉은 색의 벽돌로 지은 완벽하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탑이다. 인도의 기념비적인 백색의 건축물, 타지마할이 저녁노을을 받아 붉게 물드면, 바로 술라나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상상해본다. 수평적인 구조가 중시되었던 초기 양식과 수직으로 솟아오른 중기 양식을 혼합한 양식이다. 실내는 밝고, 건물의 외벽은 사암을 박아 넣어서 구조적으로도 안전해 보인다.





< 담마양지(Dhammayan Gyi) >

바간 지역에서 가장 장중한 탑으로 어떤 방향에서 보아도 쉽게 눈에 띈다. 탑의 본체와 첨탑부분이 훼손되어 마치 피라미드처럼 보인다. 바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의 벽돌 작품이다. 이 탑을 지은 나라투왕은 선왕인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 자신의 부인마저 살해한 왕이다. 이 포악한 왕은 전쟁포로들을 시켜 탑을 건설하게 했는데 벽돌 사이에 접착제를 쓰지 않고 지었다. 벽돌과 벽돌 사이 바늘침이 들어가면 작업한 인부의 팔뚝을 잘랐다고 한다. 붉은 벽돌들은 두부를 잘라서 틈 하나 없이 포개놓은 듯 촘촘하고 세밀하게 쌓아올려졌다. 공덕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조성한 탑으로 지금도 보수를 하지 않아서 음산한 분위기를 풍긴다. 내부에는 박쥐가 많이 살아서 박쥐의 배설물도 여기저기 보인다.





〈쉐산도(Shwesandaw)〉

황혼이 내릴 무렵, 수많은 탑들의 바다를 순례하느라 지친 육신을 이끌고 오늘 순례의 마지막 탑인 쉐산도에 닿았다. 1057년, 타톤을 정복하고 미얀마를 최초로 통일한 아노리타왕이 세운 첫 번째 탑이다. 타톤에서 가지고 온 불발 하나를 모시고 있다.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시기라서 탑에는 힌두의 신들이 많이 조각되어 있고, 와불도 있다.

고운 진흙가루가 순례자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욱하게 안개처럼 일었다. 다른 탑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탑 위로 계속 오르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개미떼의 행렬처럼 보인다. 다섯 개의 테라스는 가파르고 높지만 너비는 좁다. 철제 난간에 의지하여 겨우 기다시피 해서 정상 위로 오르자마자 우리는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동쪽과 서쪽은 가없는 평야이고 남쪽과 서쪽은 용의 등과 같이 완만한 산이 아스라이 보였다. 사방으로 펼쳐진 초원과 나무들을 배경으로 불그스레한 탑들이 수도 없이 여기저기 솟아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엄한 광경이다. 서쪽으로 해가 떨어질 때 까지 탑 주변을 돌면서 주변 풍광을 감상했다.

오늘 여행의 백미이다!

끝도 없이 솟아있는 탑들을 보자 문득 화염경에 나오는 인드라망 이야기가 생각났다. 눈앞에 펼쳐진 가없이 넓은 초원이 바로 제석천 궁전에 있는 큰 그물망인 인드라망이고, 탑들은 그물코마다 달려있는 찬란한 구슬이다. 구슬마다 다른 구슬들이 얼비치어 중중무진, 거듭거듭 한량없이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주 듯 탑들도 서로를 겹겹으로 비추어주고 있는 것 같았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에 대한 깨달음이 명징하게 다가왔다. 모든 중생들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 날 박순호 가이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모든 생명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웃은 곧 나 자신과 같으니깐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은 보시가 아니라 당위입니다.”





해가 넘어가자 빠르게 어두워졌다. 버스를 타고 이라와디강변의 멋진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탄성을 질렀다. 인적 없는 넓은 이라와디강이 장강처럼 말없이 흐르고 멀리 몇 점의 전기불이 보였지만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고요했다. 텅 비어서 더욱 아름다운 이라와디강에 금강 회원들이 색색의 조각배가 되어서 흘러가는 것 같았다. 달이 없는 맑은 밤이어서 보석상자를 깨뜨려 놓은 듯 수많은 별들이 찬란했다. 강변 노천에 저녁 식탁이 옆으로 길게 차려져 있었다. 현지식이지만 음식들도 정갈하고 맛이 있었다. 특히 미얀마 맥주가 일품이었다. 목젓을 타고 흘러가는 시원한 맥주는 타는 목마름과 피로를 일시에 씻어주었다.



호텔로 돌아와서 1인당 20불을 주고 단체로 발마사지를 받았다.
귀뚜리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달콤하고 조용한 밤이었다.

밍글라바!

2011년 1월 25일 화요일/ 글쓴이권오웅/만달레이

새벽 4시 반 기상(起床) 모닝콜이 있고, 5시 반에 호텔 방을 나와 호텔 식당에서 식사하고, 6시 반에 버스로 국내선 항공기를 타는 공항으로 출발하는 일정이 오늘도 이어졌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가이드인 개산(開山) 거사(居士) 박순호(朴淳鎬)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유익한 이야기를 들었다. 스님은 언제나 수행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그런데 스님이 성직자(聖職者)가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간다라, 마투라, 굽타식 불상 변천사, 자기 속에 보석을 지닌 거지가 나중에 자신이 지닌 보물을 알게 되었다는 법화경 얘기를 하고, 차가잉 승가대 학장이 정부를 심하게 비판하자 정부에서 체포하기 전에 민군 총정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자 민군 총정이 “속복(俗服) 갖다 달라.” 고 하자 차가잉 학장을 체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만달레이 승단 세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는데, 계율을 엄격히 지킨 총정을 국민들이 깊이 존경하기 때문이란다. 청정 승가단을 이끌기 위한 규율을 언급하면서 규율의 시의(時宜) 적절성(適切性)을 언급하였다. 부처님 당시에도 맨발로 다니다가 삐죽한 돌 문제로 밀창 한 겹의 신발을 허용한 사실(지금 스님들이 고무신 신는 것도 이 사실과 이어진다고 한다)과 어린 대나무잎으로 신발을 만들거나, 나무로 된 나막신은 금한 사실, 철엽굴 입구에 있는 온천을 스님들이 애용하자 목욕을 좋아하는 빔비사라왕이 목욕탕에 가지 못하는 사연을 부처님께 하소연하자 부처님이 스님들이 15일마다 목욕하게 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공항에서 국내선 비행기 타고 비행기 아래 펼쳐지는 미얀마 산야에 펼쳐지는 풍광을 감상하고, 오늘의 행선지인 만달레이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스님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가면서 개산 거사의 다음과 같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 공항은 권력자에게 아부하려는 태도와 행정 착오가 겹쳐져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공항은 국내선 일부와 국제선 일부만 운행되어 국제공항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데다 만달레이 시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이익이 창출되지 않자 노선버스도 운행되지 않아, 비행기 승객들은 세내어 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손님이 아니면 오직 비싼 택시만 이용해야하는 교통 불편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 만달레이는 곤파웅 왕조의 마지막 도시이며 미얀마 제2의 도시로 100만명이나 사는 경제 중심 도시이며 불교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도시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 해당하는 도시라 한다. 화교(華僑)가 많이 살고 있고, 미국의 경제 제재로 미얀마가 중국과 가까워지자 화교의 역할을 더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미얀마에 천연가스가 나고 지하자원이 풍부한 사실을 알고는 세계가 미얀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도 포스코가 가스 개발에 본격 진출하고 있는 등 미얀마 개발에 적극 참여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미얀마의 양곤의 전기 사정도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스님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면서 개산 거사의 구수한 불교 관련 좋은 얘기들을 들었다. 부처님이 속세의 보살 유마힐이 살던 바이살리에서 열반을 예언한 일, 바이살리에 살던 나라비족이 부처님 열반을 지켜보려고 따라오려고 하자 따라오지 못하게 하니 깨사비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고 뒤돌아가고, 그 자리에 뒷날 부처님을 기려 복인도 대탑(깨사비 탑)을 조성한 얘기, 파트라에서 불 족적(足跡)을 남긴 얘기, 부처님이 아쇼카 왕이 나서 불국토 통일 이루리라고 예언한 이야기, 부처님이 열반 전에 몹시 목이 마르다 하니 아난이 물을 떠러 쿠시나가르 강에 갔는데 마침 500마리 소가 강변을 지나가 물이 흐렸으나, 열반 전에 물 한 모금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흐린 물을 떠다 드렸으나 뒷날 그 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로 아난의 잘못이 들추어지어 아난이 승단에서 쫓겨났다가, 피나는 수행을 하여 진리를 깨달아 돌아와 경전 결집에 참여한 얘기, 가섭에게 마음으로 법을 전했다는 삼처전심(三處傳心)(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나누어 준 일, 염화미소(拈花微笑), 열반 일주일 뒤에 가섭이 오자 관 속에서 두 다리를 들어 보였다는 괘시쌍부(擲示雙趺)) 이야기, 500여년간 부처님 지시로 모양 없는 진리를 글자로 표시하지 못하게 하여 경전을 글자로 기록하여 편찬하지 못한 이야기, 5

백 나한들에 의한 경전 1차 결집, 일차 결집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칠엽굴 반대쪽에서 대중부 경전 결집, 아소카 왕 때의 3차 경전 결집, 카니스카에서 브스나가 주관한 4차 경전 결집, 만달레이 5차 경전 결집, 스리랑카에서 바나나 잎에 경전을 기록한(패엽경) 경전 결집 이야기, 경률론(經律論) 삼장(三藏)을 다 외운 민군 스님 이야기, 5백 나한 조성 증명 법사가 될 정도로 대단히 민군 스님이 유명해지자 민군 스님 어머니에게 벤츠를 선물한 얘기, 자기 감각 넓혀가는 것이 위빠사나 수행이라는 얘기 등을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한편으론 듣고 한편으론 주위의 풍광을 구경하는 동안 어느덧 스님들이 많이 사는 곳인, 만달레이에서 11km 남쪽에 있는 도시인 아마라푸라 도시의 타웅타만 호수 가에 이르렀다. 이곳은 화교들이 많이 살아 화교들이 세운 절도 있다고 한다.

10시 15분에 시작되는 스님들의 공양 모습을 보기 전에 먼저 타웅타만 호수에 걸쳐 있는 우베인 다리를 관람하게 되었다. 이 다리를 건설한 우베인은 이전 수도인 인와에서 수도를 이전해 왔을 당시 아마라푸라 시장이었는데, 버려진 인와 왕궁의 목재를 이용해서 1.2km의 도보용 다리를 건설했다고 한다. 비록 원래 984개의 티크 나무로 된 기둥 가운데 일부가 콘크리트 기둥으로 교체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대부분 남아 있다고 한다. 2백년의 세월을 견딘 이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 티크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라고 한다. 우기(雨季) 때와 건기(乾期) 때가 수량의 차가 많아, 건기 때는 호숫가에 여러 농작물을 경작하고 가축도 기른다고 한다. 개산 가이드는 스님들이 탁발하기 쉽게 하기 위해 세웠다고 설명하였다. 그런 일면은 있겠지만 그것으로 온전한 설명은 못되는 것 같다. 스님들 공양 시간까진 여유가 있어 우베인 다리 위를 걸으며 주위의 풍광을 감상하게 되었다. 다리에 오르기 전 널찍한 호수 풍경이나 다리 위에서 본 주위의 넓은 호수 모습은 한없이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다리 위는 바닥은 기둥에서 기둥으로 가로 질러진 나무를 의지하여 세로로 서너 개의 긴 나무가 걸쳐져 있고, 가로로는 각목보다 조금 큰 나무들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죽 박혀져 있었다. 이곳은 많은 사람과 일부 자전거도 통행하고 있었고, 중간 중간에 비록 조금은 허술하기는 하지만 쉴 수 있는 의자가 있는, 속이 빈 집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었고, 거기엔 간단한 과일이나 물품도 팔고 있었다. 우리가 간 때가 건기(乾期) 때라 물이 차지 않은 곳엔 채소와 농작물이 재배되는 모습이 보였고, 농부가 두 마리 소에 멩에를 얹어 밭을 갈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다리 아래에 팜나무 잎사귀로 지붕을 이은 집도 보였다. 이 다리 위를 걸으면서 주위의 풍광(風光)도 바라보니 평화로운 별세계(別世界)에 온 듯했다. 나는 이 평화로운 모습이 좋아 우리 일행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나 혼자 더 멀리 걸어보고, 주변의 호수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호수에는 어선들도 무수히 떠 있었고, 저 멀리 도시 일부가 숲 위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 외 많은 모습들이 평화롭게 다가오고 있었다.



우베인 다리

갑자기 시간에 늦은 듯하여 티크 다리 위를 조금은 뛰면서 가는데,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신, 우리 일행이면서 사진 전문가이고 우리 일행들의 사진을 무수히 찍어주시는 백선생님을 만났다. 몸시도 반가웠다. 그러자 조금은 여유가 생겨 조금 더 주변 풍경을 구경하고 버스에 돌아오니 가까이에 볼 만한 절이 있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별로 없다 하여 부리나케 주변에 있는 절에 달려가 신발 벗고 비스듬한 계단을 따라 법당으로 들어가니 법당 정면에 엄청나게 큰 대불이 압도하듯 앉아 계셨다. 법당엔 앞과 뒤 옆으로 32개 정도의

큰 유리 기둥이 서 있는 것이 이채로웠다. 돌아오면서 유심히 보니 입구 양쪽에 문이 있는 미얀마 탑 형식이 있어 돌아와 개산 거사에게 물어보니 문이라고 했다. 절 이름도 물어보니 절 이름은 묘향사(妙香寺)로 번역할 수 있다고 했다.



불상

스님들 공양 시간이 다가와 ‘큰 향기로운 모임(수도원)’으로 번역되는 ‘마하간다용’ 사원으로 이동하였다.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개산 거사가 승복의 유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처음에는 노인히 강변에서 시신(屍身)을 화장(火葬)하고 버린 옷을 주워 기워 만든, 분소의(糞掃衣)(인도어 판슈크라)로 승복(僧服) 만들었으나, 부처님의 주치의(主治醫)인 지빠 의사(醫師)가 왕의 병을 고치고 좋은 천을 얻게 되자, 부처님께 수행자가 숲속에서 수행하여 피부병과 추위 등으로 병을 많이 얻으니, 속가 천으로 승복을 만들 수 있게 청하니 부처님이 이를 허락하여 오늘날과 같은 승복을 만들어 입게 되었다 하였다. 승복을 논밭처럼 만든 것은 복전(福田)이 됨을 상징(象徵)하는 것이라 한다. 남방 스님들은 허리띠, 상의, 하의, 발우, 면도기 정도를 지닌다고 한다. 그 외 물건은 소지하지 않으며, 옛날의 불교 계율을 지키려 노력한다 한다. 소승불교(小乘佛教)에서는 14비법(非法)으로 대승 불교를 나무라며 분리해 나왔던 터라 원래 돈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 스님들은 돈 보시는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바로 받지 않고 계(戒) 안 받은 아이들에게 흰옷 입혀 받게 한다고 한다. 보통 절에서는 15세 이하 아이, 15세 사미계, 20살 이상 비구계를 받는다. 흰옷 입은 아이들이 돈을 받는 방식은 부처님이 사용한 축오(逐烏) 사미 전통을 활용한 것이라고 한다. 부처님 재세시(在世時)에 제자들이 탁발 나가 보니 콜레라 만연으로 위험에 빠진 아이들이 있어 그 사실을 부처님께 고하고, 거둬들일 것을 청하자 부처님이 그들을 승원(僧院)에 있게 하면서 보시(布施) 곡식 먹는 까마귀를 쫓는 소임을 맡겼다고 한다. 부처님은 승복 입고 받는 보시는 밥 한 톨도 외아들 살점 뜯

는 심정으로 대하라고 엄하게 가르쳤다고 한다. 남방 스님들은 신도들이 돈 주면 아이들이 대신 받아 스님 은행 통장에 넣어 장부 처리 하고 대중에게 적립한 내용을 공포(公布)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보시(布施) 돈은 여행 경비로 쓸 수 있고, 집에 계신 부모님께도 송금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기할 것은 미얀마에서는 스님들의 출가(出家)와 환속(還俗)이 자유롭다고 한다.

10시 15분 드디어 마하간다용 수도원에서 스님들의 공양이 있었다. 오늘은 탁발을 나가지 않고 신도들이 미리 준비해준 대중공양을 하였다. 원래 탁발을 나갈 때도 가는 장소가 미리 정해지고, 그곳에는 보시할 신도들이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사원 앞 크지 않은 마당에 큰 철 밥통이 네 개씩 여덟 개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 밥통에는 밥이 가득 들어 있었고 철 밥통 네 개씩마다 한 줄로 승려들이 줄을 서니 결국 두 줄로 승려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밥통마다 봉사하는 신도들이 밥을 퍼서 기다리고 있었다. 밥을 받고는 이어 반찬과 오늘은 노트까지 받게 준비되어 있었다. 공양이 시작되자 네 분씩 차례대로 밥을 공양 받고 이어 반찬을 받고 노트를 받고는 수도원 안 식당으로 들어가 식사하였다, 식당은 널찍하고 옆 건물도 식당으로 쓰고 있어 많은 수의 스님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스님들의 줄은 대열을 이루어 마당 밖 도로(道路) 멀리까지 이어져 장관(壯觀)을 이룬 모습을 수도원 식당 맞은편 건물에 올라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스님들은 하루 한 끼 식사를 해서인지 굉장히 많은 밥을 봉사자들이 스님들께 드리고 있었고, 스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많은 밥을 큰 발우에 받고 있었다. 그 음식을 식당에 가서 드시는 것을 보고 한 끼에 우리가 먹는 세 끼를 다 먹는 것 같아 하루 한 끼 식사가 위장(胃臟)에 줄 부담을 생각하니 하루 한 끼 식사가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았다. 스님들은 비록 하루 한 끼를 먹으나 먹을 것은 다 먹는 분들도 있다 하니 웬지 하루 한 끼 식사의 그늘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느껴졌고 우리가 미얀마 스님들이 발우 공양하는 모습에 대해 들은 것과는 웬지 거리가 있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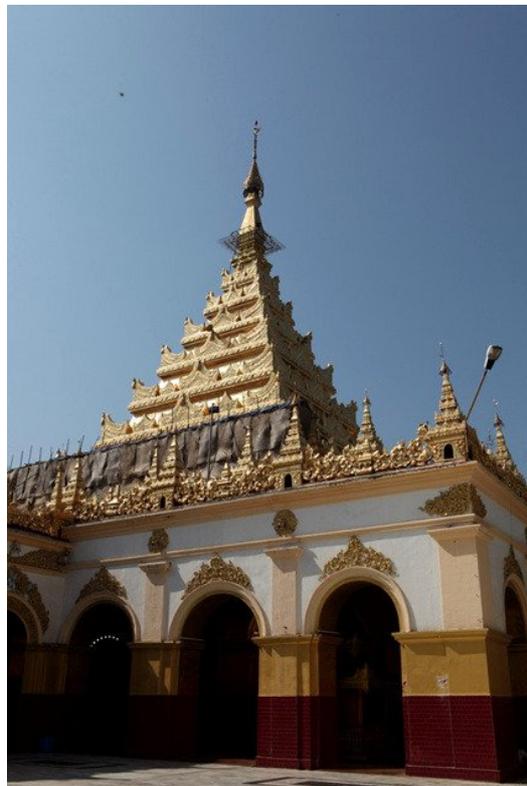




마하간다용사원 공양 모습

2011년 1월 25일 화요일/ 글쓴이권오웅/만달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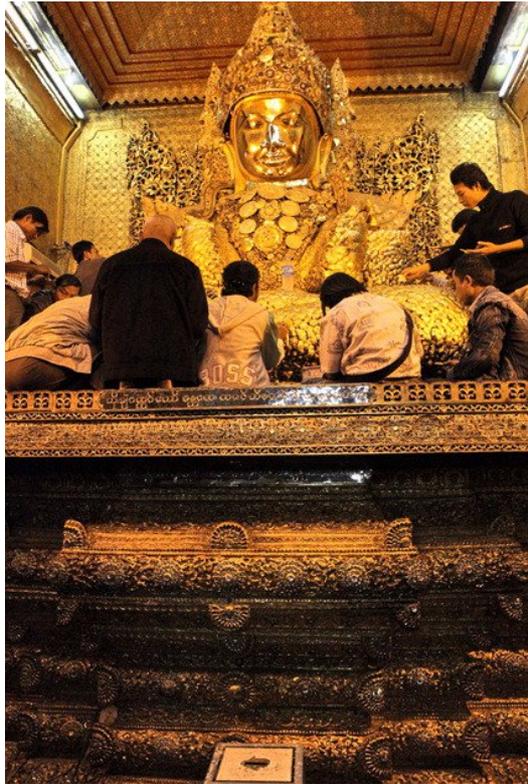
다음에는 미얀마 삼대 성지(聖地) 중 한 곳인 마하무니 황금 사원에 들렀다. 미얀마의 3대 성지는 이 외에 쉐다곤 사원, 우리나라 설악산 봉정암과 비슷한 짜익티요라고 한다. 짜익티요에는 산 정상 언덕 위에 설악산 울산 바위 10배 정도 되는 황금 바위가 있다고 한다. 마하무니 황금 사원 부처님은 여왕이 자기 몸무게만큼의 황금을 하사하여 조성한 황금 부처인데 그 뒤 여기에 질세라 후세의 왕들이 더욱 많은 황금을 보시하여 불상을 키우고, 지금도 끊임없이 금박을 붙여 불상을 황금으로 계속 키우고 있는 곳이다. 성스러운 곳으로 알려져 지금도 끊임없는 사람이 참배하고 있다고 한다. 위는 삼각뿔 모양의 큰 탑이 중심에 있고, 이 탑이 있는 윗층 둘레에는 작은 삼각뿔 모양의 탑이 조성되어 있고 당초 문양인 나뭇잎 모습의 조각이 덧붙여져 있었다.



마하무니 황금 사원

건물 내부는 많은 기둥 사이로 공간을 만들어 통행로를 내고 불전(佛殿)으로 통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주 건물 사방에는 주 건물 보다는 작지만, 비슷한 모양의 탑을 세워 주 건물을 호위하듯 서 있었다. 만든 방식은 주 건물의 탑과 그 둘레 모습을 축소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 불전은 높게 마련되어 있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불상 앞부분까지 가서 예배할 수 있으나, 여자들은 불상에서 일정한 거리 떨어진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였다. 미얀마에서 사원에서 볼 수 있는 남녀 차별 모습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었다. 남자들은 계단을 올라가 직접 불상으로 가서 금박을 붙이거나 관람도 할 수 있었다. 황금으로 불상을 만들고, 끊임없이 금박을 붙이

고 끊임없이 예배하는 사람들 모습에서 부처님을 공경하는 모습과 아울러 인간들의 무한한 소망을 읽을 수 있었다.



황금 불상

주 건물 안마당에 가서 사진들을 찍고, 작은 건물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보시로 만들어진, 여신 둘이 어깨에 맨 간타(우리나라 윤판에 해당한다고 한다.)를 구경하고, 다른 방에 있는, 캄보디아 앙코르에 있다가 앙코르를 점령한 태국인들이 약탈한 것을, 싸움에서 이긴 미얀마 바인나웅 왕이 1564년 바고로 가져왔고, 1663년 라카잉의 라자지 왕이 이곳으로 옮긴, 사자상, 쉬바상, 코끼리로 구성된 여섯 개의 청동상을 구경하였다. 언제부터가 자신의 아픈 부위와 같은 곳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고 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청동상을 만져 반들반들하였다. 이어 건물 뒤편으로 가서 다나까와 전단향을 갈아 매일 새벽 3시(안내서엔 4시)에 불상의 얼굴을 세안(洗顔)하는 데 쓸 수 있게, 다나까와 전단향을 준비된 재료와 기구로 가는 복덕 짓는 일을 하였다. 나는 잠시 갈아 보고는 곧 다시 사원 안으로 들어와 아까 덜 본 난타와 마하무니 사원 모습을 열심히 관람하였다. 아름다운 모습에 몇 번이고 볼 수 밖에 없었다. 한 번 일행이 있는 곳에 갔으나 여전히 같고 있어서 다시 사원 안으로 들어와 사원을 구경하고 다시 일행 있는 곳으로 오니, 이제 다나까와 전단향을 갈던 곳에서 나오고 있었다. 같이 사원을 거쳐 나오면서도 못내 아쉬워 불전 돌레의 모습을 몇 번이고 다시 둘러보았다. 다음에는 금박을 만드는 공방으로 갔다. 대나무 펄프를 우리나라 한지(韓紙) 만드는 것처럼 해서 종이를 만들고, 종이에 즉각 삶은 물 넣어 기름종이 만드는 얘기도 들었고, 금을 두드려 금박을 만들 때 금박이 너무 얇아져 금박에 구멍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간단한 물시계를 만들어 금박을 두드린다는 설명도 듣고 간단한 물시계도 구경하였다.



금박공방

그 외 금박 관련 사실이나 금박으로, 기름종이로 만들어진 물건들을 구경하고 만달레이에서 오직 한 사람의 한국인이 경영한다는 한 식당을 방문하여 배추로 쌈 싸 먹으면서 이국에서 한국의 풍정을 맛볼 수 있었다.

이어 호텔로 가면서 성벽 위에 깎은 연필 단면(斷面)같은 성벽이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진 성벽이 보였다(높이 8m라고 한다). 밖은 폭 50m, 깊이 3m 정도의 해자가 둘러싸고 있었다. 만달레이 왕궁의 성벽이다. 이렇게 튼튼한 성도 영국군의 왕궁에 대한 폭격으로 쉽게 함락되고 말았다 한다. 1885년 영국이 여기를 점령한 뒤 이곳을 듀퍼린 요새로 이름을 바꾸고 식민지 정부와 영국 클럽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45년 3월 20일 영국, 인도 연합군과 일본군의 격렬한 전투로 요새 안에 있던 왕궁이 전부 불타버렸다 한다. 지금 있는 것은 복원된 것이라 하는데 우리들은 이곳을 구경하지는 못했다. 호텔에서 잠시 쉬었다. 미얀마에서는 아침 일찍 일과가 시작되는 대신에 오후 1시부터 3시 정도까지 쉬는 풍토가 정착되어 있었다. 뜨거운 낮을 피해 사는 현명한 방법 같았다.

오후에는 이라와디 강가로 차를 타고 가서 전세 낸 배를 타고 민곤 대탑으로 향하였다. 이라와디 강에는 돌고래가 살고 있다고 한다. 돌고래와 어부가 협력하여 고기를 잡기도 한다고 한다. 돌고래 부르면 고래가 고기를 물고 온다고 한다. 강 건너 삼각주에는 대나무 집도 보이는데 모래 채취해 팔고, 대나무 자재 싣고 바간 거쳐 양곤으로 간다고 한다. 이 대나무 집들은 간단하게 짓고 홍수 시에는 철거한다고 한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배 윗층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남자를 높이고 여자를 낮추어 보는 풍속 때문이라고 한다. 옷을 얇게 입어 때로는 조금은 차가운 느낌을 느끼게 시원하면서도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항해하며 개산 거사의 얘기와 이라와디 강과 주변의 풍광을 즐기며 두 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갔다. 이라와디 강은 널찍하고 수량도 풍부했는데 넓은 곳은 폭이 족히 2km는 되는 듯했다. 이 강은 미얀마의 젖줄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저 멀리 큼지막한 탑이 보이니 민곤 대탑이다. 이 탑은 1791 만달레이 곤파웅 왕조의 보도페이 왕(1782~1819)이 곤파웅 왕조의 최초 수도였던 쉐보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조성을 시작했으나 기단부만 완성하고 중단되었다. 노동자들이 혹독한 노역을 견디지 못하고 영국령 인도(지금의 방글라데시)로 도망갔기 때문이다. 화가 난 보도페이 왕은 이 도망간 포로들을 잡아왔고 침략의 구실을 찾고 있던 영국은 기회가 오자 이 왕국을 침공하여 세 번 싸워 세 번 패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개산 거사는 언급하였다. 안내서와 개산 거사의 말을 종합하여 보니 1885년 민돈 왕의 다음 왕인 티보민 왕과 왕비가 유배되면서 이 왕국은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왕은 유배지에서 죽었고 왕비는 나중에 돌아왔다고 한다. 이 탑의 공사로 빚어진 노동자 도망 사건이 나라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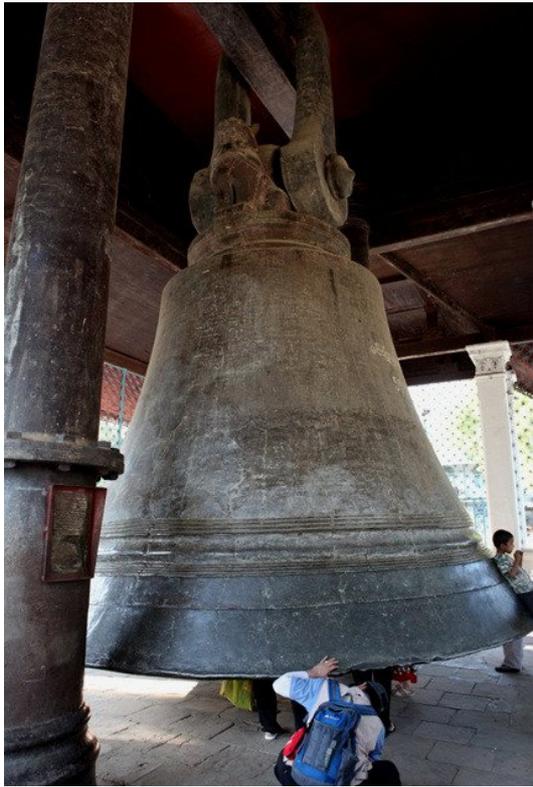
배를 내려 조금 올라가니 다람쥐처럼 생긴 큼직한 돌이 민곤 대탑에서 비록 꽤 떨어졌지만 탑 입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곳에 보인다. 민곤 대탑의 입구에 세워진 사자 모습의 영덩이 부분이라한다. 전체가 다 있으면 20m 높이는 족히 된다고 한다. 이 민곤 대탑은 사각형 모양의 기단부만 있는데 한 변이 140m, 높이가 70m(안내서엔 50m), 면적이 450㎡ 라고 한다. 다 쌓았으면 높이가 150m가 족히 되었으리라고 한다. 그런데 1838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벽이 갈라지는 손상이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벽돌로 만든 건축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로 꼽히고 있다 한다. 이 탑도 사방으로 연필 단면 같은 모습의 아치 형태로 만든 문틀에 문을 내는 방식의 문이 사방으로 나 있었다.



민곤대탑

사자 영덩이 있는 곳에서 조금 걸어 올라가니 비교적 넓은 탑 앞 공간이 나타나고, 오른쪽으로 계단을 만들어 탑으로 연결시키고 탑도 계단을 따라 오른쪽 탑 기단 부분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다른 사원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맨발로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 지진으로 무너진 탑의 일부분을 볼 수 있었다. 탑 오른쪽 부분 속으로 계단을 따라 오르는 길은 꽤 가팔랐다. 손잡이는 여행객의 안전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었다. 오른쪽 기단 위에 오르니 30명 정도는 넉넉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거기서 보니 앞쪽은 이라와디 강이 흐르는 모습이 펼쳐져 있었고, 왼쪽 아래쪽엔 민곤(민군) 기념홀과 대중각과 흰 고깔 모습을 한 산퓨메 사원이 보이고, 오른

쪽으로는 계단 건너 넓은 기단 모습이 벽돌을 쌓은 속살을 드러내고 윗부분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군(민군) 대탑은 벽돌 틈에 회를 많이 채워 바간 탑에 비해 질 많이 떨어진다는 개산 거사의 설명이 덧붙여졌다. 여기서 이필임 법우의 제안으로 반야심경(般若心經)을 독송(讀誦)하게 되었다. 또 다른 감회를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니 엉덩이 부분만 남은 사자 모습이 조그마하게 보여 이 탑의 기단부가 참으로 높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조망되는 이라와디 강과 그 둘레 풍경도 아름다웠고, 탑 주변의 산들의 풍경도 보기에 좋았다. 다음에는 민군 대탑 옆에 있는 민군 기념홀을 방문하였다. 경률론(經律論) 삼장(三藏)을 다 외운 민군 스님의 젊은 시절부터 만년(晩年)까지의 사진과 행적에 대한 설명이 홀 안에 전시되어 있었다, 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민군 종을 보러 갔다. 보도파야 왕이 민군 사원 건립과 함께 청동으로 만든 이 거대한 종을 이 사원에 헌납한 것이라 한다. 1808년에 만든 이 종은 무게가 87톤, 높이 3.65m, 둘레 5m, 두께 60cm로, 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종이라 한다. 이 종을 쳐 보아도 비교적 맑은 소리가 났다. 이 종 속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일행 중 일부는 종 속에서 밖으로 내다보며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종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밖에서 종을 쳐도 별로 충격을 받지 않고 비교적 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민군종

웅장한 종과 비교적 맑은 종소리를 뒤로 하고 조금 더 걸어 신포메 사원으로 향하였다. 이 사원은 사랑하는 신포메 부인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죽자 그녀를 그리워한 바지도 왕이 자신이 왕이 오르기 3년 전인 1816년에 건립하였다고 한다. 이 사원의 물결 모양을 한 7개의 계단(테라스)은 메루산을 둘러싸고 있는 7개의 산을 의미하고, 그 중앙 탑의 단은 메루산, 그리고 중앙 탑은 석가가 출가할 때 깎은 부처 머리카락을 모아 놓았다는 술라마니를 상징한다고 한다. 중앙 탑의 불살을 모신 곳의 입구는 동쪽으로 나 있는데, 앞뒤로 두 개의 불상이 있었다. 뒤쪽 것이 원래의 불상이고, 동쪽을 향해 있는 것은 2001년에 새로 모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래 있던 부처는 파불(破佛)할 수 없어 그대로 두었다 한다. 뒤에 있는 부처는 선정(禪定)에 들어 선정(禪定)의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이 비교적 잘 표현 되었고, 앞에 있는 불상 모습은 무표정한 듯한 모습이나 인자함이 약간은 비치는 듯했다. 신포메 사원 역시 1838년에 지진으로 손상을 입었으나 민돈 왕이 1874년에 복원하였다고 한다. 이 사원은 연필 단면 속에 문을 낸 듯한, 네 방향의 큰 문들 속 층층 계단을 거쳐 불상을 안치한 곳에 이르게 만들어져 있고, 올라가는 층층 문 연필 단면보다는, 작은 연필 단면 같은 모습 속에 감

실(龕室)과 비슷하게 만들고 그 속에 불상을 안치한 곳을 많이 배치하여 위에서도 아래서도 그 불상을 보고 경배(敬拜)할 수 있게 하였다. 탑 정상부 불상을 안치한 곳에서 옆으로 돌아가면 난간이 둘러져 있어 밖을 조망할 수 있었다. 문을 통한 층층 계단 밖으로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그 길을 따라 내려가면 옆길로 나가 감실 같이 만들어진 곳에 배치한 불상을 경배할 수 있는 공간이 빙 둘러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거기서 살펴보고 나중에 사진을 보고 자세히 관찰하고 얻은 결론이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여러 상황을 출발 시간이 급하게 느껴지고, 거기다 지쳐 좀 더 확인하면서 구경하지 못한 것이다. 사원을 내려오니 일행들은 저 멀리 가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백 선생님이 사원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다 한다. 그것을 알았다면 조금은 더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았다. 웬지 이 사원은 여러 층계로 점점 높아지면서 높은 곳에 불상을 모시고, 그 위에 탑이 배치되었고, 그 층계마다 갈매기가 날개를 펴고 앉았고 그 날개 사이에도 불상을 안치한 듯한 느낌이 든다. 흰 색의 이 사원에서, 사원 층계에 앉은 많은 갈매기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신퓨메 사원

부리나케 일행을 뒤따라오면서도 신퓨메 사원을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왔다. 물건 사라고 보채는 아이들을 내 몰라라하고 바삐 길을 재촉하고 오는 심정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민군대탑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민군 대탑 입구에 있는 사자 엉덩이 부분 조각을 다시 보고 배에 올랐다. 드디어 일행을 태운 배가 다시 우리가 묵는 호텔이 있는 곳을 향하여 떠났다. 늦은 오후의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어느 부부의 사랑 얘기, 어느 분의 지난 세월 지난 얘기 등등을 들으며, 배를 타고 오며 이라와디 강과 돌레의 풍경을 보고 오는 모습도 참으로 정겹게 느껴졌다. 아쉬운 것은 출발 시간이 조금 일러 낙조(落照)의 찬란한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다.

2011년 1월 26일 수요일 / 글쓴이 고태희 / 헤호 인레호수(Inle Lake)

“인레호수는 미얀마 산(Shan)주에 있는 가장 큰 호수로 해발 880m의 고원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 양곤에서 660km, 만달레이에서 330km 떨어져 있다. 호수의 크기는 116km²로 폭은 11km, 길이는 22km에 달한다. 수심은 2미터정도이고 전체 모양은 남북으로 길다. 인레호수까지 가는 길이 녹록하지는 않다. 헤호(Heho)에서 내려 시골길을 덜컹거리며 한참을 달려야 산정호수를 만난다. 이 호수는 규모로만 따지면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다. 호수 위의 수상마을만 17곳에 다다르지만 그 존재를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에코 투어의 독특한 풍경을 담으려는 몇몇 여행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을 뿐이다. 미얀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계림의 산수가 부럽지 않은 곳이란다. 그동안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다가 최근야야 모습을 드러낸 곳으로, 원시적 자연환경과 문명에 물들지 않은 소수민 족을 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인레호수는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교통수단으로 모터보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가도 호수의 10분의 1도 돌지 못한다고 한다.

만달레이 세도나 호텔



〈만달레이 세도나호텔에서 본 전경〉

전날 목은 만달레이 세도나 호텔에서 바라본전경이다. 다른 방 법우님이 전망이 너무 좋다고 1불을 내라고 농담 삼아 얘기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일본 여행 때의 이조성 앞 해자보다 더 넓은 해자가 보였다. 저 멀리 산에 탑도 보이고, 밤에 보니 탑이 빛을 내고 있었다. 너무 멋있었다. 이곳은 만레이성으로, 지금은 군부대라고 한다. 보안이 잘되니 저녁에 나가봐도 걱정 없다고 박순호 가이드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도 편견과는 달리 미얀마에서의 여행은 꽤 안전한 편이라고 했나보다. 그래도 피곤하기도 하고 내일 일정을 생각하니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5시 30분 기상, 6시 30분 아침공양, 7시 20분에 출발해야 한단다.

만달레이 공항 가는 길



〈만달레이 공항가는 모습〉

호텔에서 만달레이공항으로 출발하면서의 길거리 풍경이다. 아침 일찍 청소하는 모습과 위아래 초록색론지와 흰색윗옷을 입은 학생이 자전거로 학교를 가는 모습과 탁발하러 가는 스님들, 트럭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박순호 가이드의 이야기에 경청하다보니 1시간정도 달려 만달레이공항에 도착했다.

만달레이 공항

만달레이 공항은국제공항이다. 시설은 국제선 취항을 대비하여 최신시설을 해 놓았다고 한다.

시내에서 1시간정도 떨어져 있는데 노선버스가 없어서 개인여행자는 비싸도 대절 택시가 아니면 갈수가 없다고 했다.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 이 공항에 행정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 현대식이라 그런지 양곤공항보다 깨끗했다. 서비스업이 활성화된 우리나라에 익숙해서 그런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서 안내원이 주는 수건을 서비스로 생각하고 사용했다가 1달러를 내야한다는 말을 듣고는 황당했다. 9시 25분에 만달레이공항에서 70인승 W9011국내선 프로펠라 비행기로 25분정도 타고 가는데, 아래 토지가 황토색, 갈색, 초록색으로 천연염색한 천을 이용해 짜집기한 우리네 조각보 같기도 하고, 조각으로 누빈 부처님가사가 덮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 같기도 했다. 약 20분을 날아가 조그만한 헤호 공항에 도착했다.

헤호공항

헤호공항은 한국의 버스 정류장 대합실 같았다. 소박한 느낌과 정겨움이 깃들어 있다. 일본, 중국, 프랑스여행자들도 보였다. 그들도 같은 마음을 느꼈을까?

간단한 수속을 마치고 인레호수로 가는 길이김천시 증산면의 99고개 가는 것 같이, 속이 불편할 정도로 구불구불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다. 평지를 달릴 때는 사탕수수나무, 학교도 보이고, 석회가 많아 좋지는 않지만 온천도 있다고 했다. 너무 평화롭고, 시골길은 우리 한국의 들레길을 보는 것 같았다. 내려 걸어서 갔으면 더 낭만적이었을 것 같았다.

버스 안에서, 박순호 가이드는 자신의 인생사를 얘기해줬다. 다 글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인생경험, 해박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참 구구절절했다. 그 내용 중 하나로 자식에 대한 애뜻함과 자식을 부처님으로 알고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다. 안이비설신의 6근을 바로 보고, 나를 버리고 처절하게 하심하여 기도하며, 2분법 사고를 두지 말고, 항상 깨어있고, 수행하라는 훌륭한 법문은 박순호 가이드와 우리들의 인연을 두고두고 생각하게 할 것이다.

가이드 분은 각각 배를 따로 타기 때문에 인레호수 관광코스및 볼 거리를 미리 설명해 주었다.

후핀호텔(HU PIN HOTEL)



〈후핀호텔 전경〉

11시 숙소인 후핀 호텔에 도착했다. 인레호수에 접경한 호텔의 아름다운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호텔 앞에서 직원들이, 징이 다섯 개 달린 악기로 민속음악을 울리면서 환영인사를 해주어 감동했다.

각각 숙소배정을 받고 들어가니 침대위에 공주 풍으로 되어 있고 숙된 말로, 끝내주는 인레호수의 주변경관, 이런 예쁜 방이 기다리고 있었다.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밤이 기대됐다.

인레호수로 출발

11시30분에 5명이 탈 수 있는 나무로 만든 배는 좁고 긴 나룻배 모양으로, 우산도 놓여 있어 정겨워 보였다. 각각 이 배를 타고 인레호수로 출발하였다. 물은 맑은 편으로, 밑에 수풀이 있어 호수색이 초록색으로 보였다. 이것은 호수 밑의 수초인데 경작지에 거름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물갈매기떼와 먹이 주는 모습〉

물갈매기에게 과자를 주는 척 시늉을 해 한 마리를 유인하면, 그 무리가 따라온다고 한다. 이를 이용해 물갈매기에게 과자를 주니 그림처럼 계속 따라와 너무 신기했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던지 달리는 내내 아이들처럼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외발 노젓기



〈외발 노젓기〉

인타족들의 노젓는 법을 보면 아슬아슬하면서도 신비롭다. 한발은 배 위에 딛고 다른 발은 장판지에 노를 끼워 젓는다. 드넓은 호수에서 방향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인데 노를 저으면서도 양손을 이용해 그물을 내리곤 한다. 외발 노젓기를 하면서 수초도 모으고, 물고기도 잡는 모습이다.

“외발로 노를 젓게 된 슬픈 전설은...

옛날에 왕이 부왕을 죽이고 자기도 남의 손에 죽을까봐 두려워 모든 남자들의 한쪽 팔을 잘랐다고 한다. 그래서 발로 노를 젓게 되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다. 위의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전설일 뿐이고 실제로는 호수에 갈대와 수초들이 많아서 앉아서 노를 저으면 갈대 너머 무엇이 있는지 보기 어려우므로 시야 확보를 위해 서서 노를 젓게 되었다고 한다.”

호수 안에 나무로 만든 전봇대를 세워 전기를 공급하는 모양인데, 수상가옥에 연결을 하고 있다.

팡도우 파고다(phaungdawoo pagoda)

12시 경에 팡도우 파고다앞에 있는 HTUNHTUN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선착장에 도착하여 부축을 받고 레스토랑에 올라갔다.

여러 가지 토산품과 옷들이 보였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물건도 파는 모양이다. 우리네 박나물과 상추, 수경 재배한 신선한 토마토와 닭고기등이 나왔는데 기름에 볶은 박나물은 참 맛났다. 여행 중에 음식 때문에 고생이라고 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이 나와 즐거운 여행이었다.

우리가 탄 배가 옆으로 조금 이동하자마자 불교 깃발(오색기)을 단 팡도우파고다 앞에 바로 선착했다. 선상에서 사는 이곳 원주민인 인타족은 한 발짝이라도 배로 움직여야만 하는데, 내가 꺾어보니 그들이 참 불편하게 생활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팡도우 파고다〉

파고다가 지어진 건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불상들은 12세기 알라웅시투(Alaungsithu)왕때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파고다 중앙에는 5개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3개는 부처의 상이고 2개는 부처의 수제자들의 상이라고 한다. 팡도우 파고다의 불상은 저 모습이 불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공처럼 둥근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면서 금을 붙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금을 매우 성스럽게 여겨서 그 금에다 빨간 천조각을 문지르고 그 천을 자전거, 자동차, 트럭 등에 매고 다니면 사고를 예방해 준다고 믿는다. 이곳의 가장 큰 축제인 팡도우 축제 때는 5개 불상 중에 4개를 배에 싣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축복을 빌어 준다. 이 때 가장 작은 불상 한 개는 팡도우 파고다에 남아서 파고다를 지키게 되는데 이 불상이 남아 있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여러 해 전 축제 기간에 사고가 나서 불상을 싣고 가던 배가 전복되었다. 4개의 불상은 건져내었지만 한 개는 찾지 못했는데, 사공들이 팡도우 파고다에 돌아와 보니 없어진 1개의 불상이 수초를 뒤집어 쓴 채 제자리에 있는 것이었다. 그 후로는 축제 기간에는 반드시 이 하나가 사원을 지키도록 남겨두게 되었다. 사원의 한 구석에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온 불교 신자들과 관광객들이 시주하고 간 돈을 전시하고 있다. "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인공 섬에 지은 팡도우 사원 경내에 들어가니, 부처님이 보이질 않아 의아해 했는데 듣던 대로 5불 부처님이 금에 쌓여 눈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다. 계속 사람들이 금을 많이 붙여 더 커지면 다시 그 금으로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가이드님이 말을 했다.

여기서도 부처님 단에 남자신도들만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권오웅 법무님은 벌써 올라가서 보고 계셨다. 미얀마의 불교에서는 여성의 불평등을 이야기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남녀 차별인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경내에는 매년 10월, 다섯 개의 불상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보트인 반야용선(“불교를 수호하는 새” 인 가루다형상을 띄고 있다)의 사진이 있고, 축제모습과 팡도우사원의 개축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일대기가 강렬한 색상의 미얀마식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 팡도우 사원의 주위 모습도 참 아름다웠다.

2011년 1월 26일 수요일 / 글쓴이 고향희 / 헤호 인레호수

힌타새 조각상



“1965년 팡도우 축제 때 불상을 실었던 배가 침몰한 장소에 전설 속의 힌타(Hintha)새(상상의새)를 조각한 탑을 세웠다” 고 한다.

전통실크공방



13시10분에 출발하여 약 20분가량 배를 타고 전통실크공방에 도착했다. 물위에 흙을 쌓아 그위에 나무로 집을 짓은 공방이 공정별로 여러 채 있었다. 이것은 연줄기에서 실을 뽑아, 실에 물을 뿌려가며 손바닥으로 밀어 실 줄을 만드는 과정이며, 그 줄로 직물을 짠

다. 실을 물레에 돌려 실을 뽑아내는 과정이다. 이것은 실크로 옷감을 짜는 모습인데, 두 번째는 염색을 한 실로 색이 있는 실크 천을 짜는 모습이고, 세 번째는 연실과 실크로 천을 짜는 모습이다.

친정어머니도 젊었을 때 베틀에 옷을 짰다고 한다. 어머니 생각이 났다. 힘들텐데 힘들어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

가족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모습이 정겨워 보였다. 가족들은 순한 미소들을 보내주고 있었다. 엉성한 화장실도 보였다.

완제품상점을 가보았다. 연실로 만든 스카프가 80달러나 되었다. 투박하고 색이 자연스럽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 옷들은 순면이고 실크지만 디자인이 70~80년대 모양뿐이었다. 내 몸에 맞는 작은 옷이 많아 구매할까 했는데 조금은 촌스러워 사지 않았다. 가격은 싼 편이었다.

입담배 만드는곳



14시 20분에 입담배 만드는 곳에 배를 타고 도착하였다. 여기는 수상가옥에서 위와 같은 공정으로 입담배를 만들고 있었다. 작은 기념품 가게도 팔려 있었다.

목이 긴 빠다웅족 여인들



〈빠다웅족 다섯 여인과 함께〉

“Padaung(파다웅,빠다웅)족은 미얀마 동북쪽과 태국의 서북쪽 접경지역에 집단거주하는 고산족(hill tribe)으로, Padaung은 목이 긴 사람이라는 뜻이다. 서양사람들은 이들을 Long neck tribe(기린족)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여인의 목이 길면 길수록 미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생동안 목에 황동(놋쇠)으로 된 목걸이(coil)를 착용하고 다니는 풍속을 가지고 있다. 이 놋쇠고리는 기린족 여인들의 신분과 부,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원래는 놋쇠고리에 은으로 만든 사슬이나 동전을 주렁주렁 늘어뜨려 한결 화려하게 장식을 하였으나, 요즘은 관광객을 상대로 눈요기거리를 제공하면서 좀 더 간편한 차림새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 한다. 여자아이가 5~6세가 되면 놋쇠고리를 착용하기 시작하여 점차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놋쇠고리의 길이를 점점 늘려나가는데, 일단 목걸이를 착용하면 평생을 벗지 않고 지내며, 예외적으로 목걸이를 벗을 때는 고리의 길이를 늘일 때와 광택을 낼 때 뿐인데, 광택은 처음 목걸이를 걸고 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이뤄진다고 한다.

기네스북에는 놋쇠고리는 최고 22kg, 최대 목의 길이는 40cm, 사실은 목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어깨뼈가 눌러져서 목이 길어 보이는 거라고 한다.”

사진 속의 다섯 여인들은 한 가족이라고 했다. 표정도 없고, 그저 관광객들에게 찍혀주기 위해 존재하는 여인들... 얼마나 무거울까,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 무게의 압박을 달고 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그 처지라면 삶이 참 슬플 것 같다. 가장 큰 벌은 그 놋쇠고리를 벗겨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 목을 가누지 못해 손으로 받쳐서 일어나야 할 정도인데 이것은 근육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망도 못가고, 그렇게 누워서 죽어야 한단다.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 그곳에는 전통 목각 인형들이 많이 있었다. 시간도 없고 머니도 없고 사 올수 가 없었다.

수상시장 보트

작은 배 안에 기념품을 가득 싣고 다니면서 관광객의 배가 들어오면 바짝 달라붙어 물건을 팔려고 한다. 살 것은 별로 없었다. 너무 예쁜 아가씨가 있어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미소를 지어 주었다. 순수해서 인가 더 아름다워 보였다. 한 개라도 기념으로 사 줄 걸, 미안한 마음이 아직도 든다.

경작지



〈수경재배하는 경작지〉

인레호수에 사는 인타족은 모든 작물을 수경재배 하는데, 농약은 물론이고 비료도 주지 않으니 모두 무공해 농산물이다. 물론 맛도 아주 좋다. 물 위에 여러 개의 대나무를 엮어서 띄우고 그 위에 수초와 흙을 덮어서 만든 밭에서 토마토, 콩, 고추, 가지, 마늘, 컬리프라워, 양파, 꽃 등을 재배한다. 다른 곳에 비해 훨씬 청정하다. 좁은 밭이랑 사이를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수확하는데, 그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폭이 좁은 이유를 알 것 같다. 그 사이사이 대나무를 박아 경작지가 떠다니지 않게 한단다.

경작지도 대나무를 경계로 삼아 판매를 한다고 한다. 여기는 호수위의 경작지는 판매가 가능하나, 육지의 땅은 가질 수가 없단다. 꽃밭이 많은데 부처님 꽃 공양에 주로 사용된다고 한다. 우리가 탄 보트의 뱃사공이 경작지에 올라가 훑어보고 있는 모습도 보여 주었다.

점핑캣 사원(Jumping cat temple)



점핑캣사원에 도착했다. “원래 이름은 응아빠까웅(Nga Phe Kyaung) 사원이다. 이 곳 승려들은 고양이 수십 마리를 길들여, 동그란 굴렁쇠 안을 점프해서 통과하는 고양이의 묘기를 보여준다. 고양이 묘기 때문에 ‘응아빠까웅’이라는 원래 사원의 이름보다 점핑캣(Jumping Cat)이라는 이름이 더욱 잘 알려져 있다. 사원에는 산, 티벳, 바간 그리고 인와 스타일의 불상들이 있는데, 불상이 놓여진 주춧대와 불상이 들어있는 케이스는 화려하게 나무로 모자이크 되어 있다. 이런 주춧대들은 산과 태국 북쪽 불교 예술의 진수인데 대부분 100년이 넘었다. 원래 있었던 불상의 상당 부분이 도둑 맞았거나 팔려서 지금 케이스에 들어 있는 불상들은 새로 들여온 것들이 많다.” 고 한다.

주로 고불부처님으로 입구에서 볼 때 이어져서 앞쪽에 9개,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뒤쪽에 양쪽으로 3개, 1개, 4개 가 모여져있고, 우측에 별도로 4개 좌측에 3불이 모여져 있었다. 오래돼 보이는 것은 2~3개 정도 인 것 같았다. 내부는 어둡서인지 음산해 보였다. 고양이는 봤지만, 묘기를 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그 곳에 있는 여러 가게들 안에서 눈요기도 하고 조금 쉬다가 출발하였다.

돌아오는 길

15시 45분에 출발해 30분간 다시 인레호수를 가로질러 숙소로 돌아오는데, 출발할 때처럼 물갈매기떼가 또 과자를 주니 때로 몰려들었다. 어제 민군대탐에서 관광보트를 맞이하여 물건을 팔려고 하는 인간 참새 떼들 같았다. 찌찌라는 남자아이가 신발을 가지고 와서 가격은 다른 곳보다 더 주고 샀지만, 덕분에 오늘 무사히 발고리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고지에 평야와 호수가 남모르게 숨어있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고, 하늘이 물에 비쳐 산도, 물도 동화되어 버렸다. 끝도 보이지 않는 호수, 장대함을 느끼며 나도 여기에 동화 되어 버리는 것 같았다. 하늘도 우리를 반기듯, 폭죽이 터지는 듯한 구름이 우산 위로

떠 있었다.

16시 15분에 숙소로 돌아와 18시 저녁공양 전에 호텔옆 야산에 있는 탑에 올라가서 삼배를 하고 권영단 법무님과 김정희 법무님이 108배를 했다. 해는 졌지만 인레호수의 석양이 너무 멋있었다.

저녁공양을 마치고 은은한 전등빛에서 미얀마 맥주를 한잔씩 마시면서 담소를 나눴다. 이번 여행의 소감을 일정, 장소, 식사, 일행, 가이드 5가지가 너무 좋았다고 하고, 무조건 좋았다는 분, 가이드인 개산거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불교 공부를 시작해보겠다는 분, 박순호 가이드님의 삶의 법문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다는 분,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 분, 욕심을 더 내려놔야 하겠다는 분등 너무 알찬 시간이 아쉽게 점점 어두워 졌다.

박순호 가이드가 아쉽다고 캠프파이어를 하자고 해, 몇 분이 노래도 하고 지역만리 같은 지구에 별이 총총 박힌 하늘도 보고, 불도 쬐고 숙소가 추우니 몸도 데워서, 내일을 위해 아름다운 숙소로 돌아갔다.



미얀마는 난방이 없단다. 실감난다. 다행히 뜨거운 물은 나와 반신욕을 하고 주무신 분들도 있단다. 너무 추워 양치하고 얼굴만 세수를 하고 파카를 입고 담요를 깔고 담요를 두 장이나 덮고도 추웠다. 도착했을 때 공주처럼 잠을 자지 않을까 했는데 추위 때문에 환상에서 깬다. 우리인생도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의문하면서

마지막으로 백승환(보리송이)님이 사진을 잘 찍어 주셔서 몇 장 빌려왔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미얀마 여행 5일째, 수상가옥을 본 딴 객실은 난방이 안 된다. 침대 바닥에 2겹의 담요를 깔고 4겹의 담요를 덮고 취침을 해서인지 추운 줄은 몰랐으나 잠을 깨고 5시 30분에 기상하여 침대에서 나오려니 공기가 너무 차가웠다. 일행 중 많은 분들이 지난 밤에 몹시 추웠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를 한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것 같다.

6시 30분에 식사를 한 후 어제 인레호수에서의 추억을 담은 채 후편호텔을 떠나려니 하늘이 구름과 어울려 너무나 아름답다. 일행들은 떠나기 전 호수와 호편호텔을 배경으로 한 장의 사진이라도 더 찍어 이 분위기를 남겨 보려고 한다.

마침 5일장이 열린다하여 예정보다 이른 7시 10분 해호 재래시장을 들렀다. 가는 길에 온천이 보였다. 사탕수수도 많이 보였는데 이곳의 주된 수입원이라고 한다.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데는 재래시장이 최고이다. 개산거사에게 10달러를 8천 쫓으로 환전 했다. 쫓이라는 미얀마 화폐는 모든 돈에 대통령의 띠인 사자의 모습이 있다.



재래시장은 지붕이 있고 규모가 크다. 다나카를 바른 여인들의 모습이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이제는 정감이 간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표정이 밝고 호객행위는 없다. 개산거사는 쌀국수를 맛나게 먹는다. 바나나잎에 찹쌀을 싸서 찌고, 코코넛 채를 뿌려 만든 음식을 사먹었는데 아주 맛있다. 과일과 곡물, 음식을 파는 여러 가게를 둘러보고 해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는 마침 미얀마의 국내선에서는 첫 비행을 하는 'Acian Wings' 항공의 제트비행기에 밉곤 큰스님의 상좌스님이 직접 오시어 축하해 주시고 공작새를 닮은 의상을 입은 분들이 전통춤을 추고 탑승객에게는 꽃다발 증정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모든 일에 불교의식이 담겨 있는 것 같다. 불교 국가다운 모습이다.

우리 일행은 Air Bagan을 이용하여 9시 40분 이륙했는데 지정 좌석 없이 임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오히려 편안했다.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어 첫 날 도착한 양곤공항에 도착했다.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양곤의 로카찬다 파고다(Lokachada Pagoda)이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옥불을 모신 곳으로 유명하다. 옥으로 만들어진 불상은 유리상자에 고이 모셔져 있는데, 유리에 빛이 반사되어 불상을 자세히 보기 어렵다. 이 옥불은 1,000톤의 한 덩어리 옥을 깎아 조성한 것으로 근세 이후 미얀마 불교의 최대 불사로 꼽힌다.

미얀마의 한 재벌(불상을 조각하는 일을 하는 우마웅지라는 사람이 기증)이 1,000톤의 옥덩어리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옥으로 불상을 만들기 위해 옥광산을 통째로 사서 옥이 깨지지 않게 하기위해 옥광산을 가에서 허물어 들어가는 방법을 썼다고 한다.

이 옥은 하루에 300 명씩, 연인원 10 만명이 1년 여의 작업 끝에 캐냈는데, 이 때 참여한 인부들은 전원 무보수로 봉사를 했다고 한다.

본래 이름은 로카찬다 아바야라바무니 좌불 (Lokachada Abayarabamuni image)인 이 불상은 1999년 반달레이 북쪽 석재 광산인 싸진(Sagyin) 지방에서 조성되기 시작하여 1차로 좌불 형태가 대강 완성 되었을 때 화물선으로 이라와 디강을 따라 양곤에 도착한다. 마무리 작업은 양곤에서 하였으며 미얀마 최대의 옥불상으로 높이는 11m가 넘고 무게는 600톤에 이른다.





옥불을 만달레이에서 양곤까지 이동시키는데 11일이 걸렸는데, 이 기간 동안 미얀마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옥불을 이동하는 모습과 옥불을 기증한 우마웅지가 군부들에게 환영받는 모습 등을 그린 그림을 파고다의 계단에서 볼 수 있다. 미얀마인들의 깊은 불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부러움을 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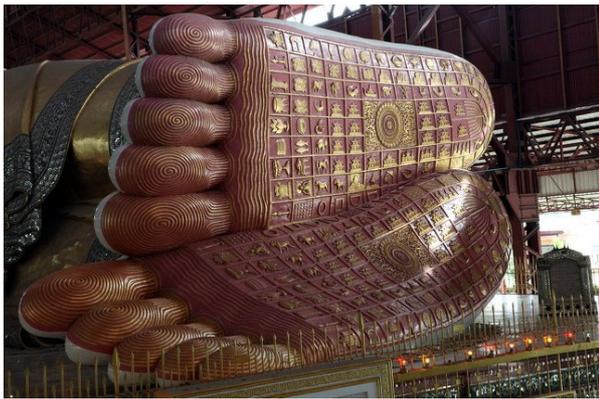
경내에는 옥 좌불이외에도 동자상, 스님상, 복전함 등이 옥으로 만들어져 있다.



로카찬다 파고다 옆에서는 옥불을 옮긴 흰색코끼리(실제는 분홍빛)가 일반코끼리(짙은 회색)와 함께 사육되고 있었다. 관람을 위해 발이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것이 안타깝다. 다행히 관람시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다른 공간으로 옮겨져 쉴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웨다곤파고다에서 가까운 쉘공다잉 로(Shwegondine Rd.)에 자리잡고 있는 차욱탓지 파고다 . 차욱탓지는 '극락의 6층'이란 뜻이란다. 차욱탓지 파고다 내에는 길이 67미터, 높이 18미터나 되는 미얀마 와불 중 두 번째로 큰 와불이 간직되어 있다. 와불은 원래 1907년에 만들어 졌으나 파괴된 후, 1966년에 Sir Hpo Thar 에 의해 다시 만들어져 6층 높이에 철판 지붕을 얹은 철골구조로 차욱탓지 사원내에 보관되고 있다. 막대한 공사비는 모두 기부금으로 충당되었다. 차욱탓지 파고다 가까이에는 불경을 공부하는 600명에 이르는 수도승이 거주하는 수도원이 있다.



와불은 해부학적 인체 구조를 분석하여 조성하여 완벽한 조형미를 보여준다. 목 뒤의 근육, 발 안쪽과 바깥쪽의 표현과 복숭아 뼈까지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와불상의 속눈썹은 너무 예쁘고 손톱과 발톱에 핑크빛 매니큐어가 되어 있고 입술은 빨간색 루즈까지 하고 금박된 옷을 입고 있다. 와불의 콧구멍 안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어 벌레 접근을 막았다. 원래는 좌불이었으나 보수하면서 와불이 되었다한다.

발바닥의 108개 문양은 육계, 색계, 무색계를 나타낸다. 문양의 뜻을 일일이 삼계의 한 부분으로 구별하여 설명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 문득 작년 6월에 금강회에서 답사한 금강산 건봉사의 바라밀 석주의 문양이 생각났다. 발 뒤쪽에는 전망대를 만들어 두어 와불의 전체 모습을 보며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와불상 둘레는 신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코끼리상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카펫트에서 신도들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파고다 내에는 보시한 분들의 이름이 공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누군 가 보시한 '황우석박사님 특허수호 연구재개'라는 것과 더불어 여러 분들이 오시어 보시를 한 것이 보인다.

일정에 있던 까바에 파고다에서의 진신사리 친견이 내일로 미루어졌다.

친견을 하려면 공문을 보내고 종교성에서 정해주는 시간에 사리불, 부처님, 목련존자의 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일행에게 허가된 일자와 시간이 내일이라고 한다. 까바에 파고다에 진신사리가 모셔지게 된 것은 인도에서 영국으로 가져간 사리불, 부처님, 목련존자의 사리를 인도에 반환하려던 것을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인도와 달리 불심이 강한 미얀마에서 외교 활동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우리 일행은 로얄가든 레스토랑에서 점심 요리로 점심식사를 했다. 미얀마에

서는 소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로 소고기를 제외한 여러 종류의 재료로 만든 점심과 볶음밥을 맛있게 먹었다. 식사 후 양곤에서 제일 큰 시장을 향했다. 로얄가든 옆에서 미얀마에 유일하게 남아 있다는 '아웅산 동상'을 지나가며 차안에서 볼 수 있었다.



양곤 아웅산 거리에서 제일 큰 보족마켓 에 가는 길에 무우수나무 (약 2,600년 전 석가족 왕국의 정반왕의 부인 마야 왕비가 산달을 맞아 친정을 향해 가던 도중 룸비니 정글에서 꽃이 만개한 무우수나무 가지를 잡는 순간 부처님이 탄생하셨다.) 를 보았다. 이곳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나무 중 하나이다.

보족마켓에서 토산품과 루비, 옥제품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고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서 아름다운 성당 하나를 발견한다. 양곤 아웅산 거리에 1886년 봉헌된 삼위일체 대성당(Chthedral of the holy Trinity) 이다. 미얀마의 가톨릭도 초기(1600년경)에는 많은 박해를 받았다고 한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서로의 종교를 존중한다고 한다. 국가에서 종교시설을 보호, 지원한다고 한다. 보시함인 듯한 곳에 1달러를 넣고 나왔다.



이어 웨다곤 파고다 옆에 있는 불교용품 전문 매장에 쇼핑을 갔다. 개산거사는 '중장비'라고 표현했다. 스님들의 용품을 파는 곳이라는 뜻이란다. 불상을 직접 제작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CD, 염주, 옷 등을 파는 매장들이 즐비했다. 이곳에서 흑단 염주를 5불짜리 하나와 1불짜리 2개, 팜나무로 만든 부채 4개를 5불에 구입했는데 크기가 가방에 들어갈 수 없어 이마트 가방에 넣어 집까지 가져 온 것이 기억에 남는다.

나오는 길에 골목에서 세팻타크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저녁은 스끼요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사바사바와 비슷한 음식이었다. 세도나 호텔에 도착 하니 해호공항에서 보았던 'Acian Wings' 항공 첫 출항을 축하하는 파티가 우리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린 짐을 풀고 잠시 쉬다가 근처의 생맥주 집에 가서 각종 꼬치와 생맥주로 여행의 피로를 풀었다.

2011년 1월 28일 금요일/ 글쓴이류연식 / 양곤

어제 양곤으로 돌아와 이제는 얼마 정도 익숙해진 세도나 호텔에서 저녁 자유시간을 즐긴 후 아침을 맞이했다. 오늘은 미얀마 여행의 하이라이트, 개산 거사님은 마지막에 나오는 '콘서트의 조용필' 이라고 표현하신 쉐다곤 파고다를 만나보는 날이다. 그 곳에 가는 길에 쉐다곤 파고다 인근의 아웅산 묘소를 먼저 참배하였다.

아웅산 장군은 아웅산수처 여사의 아버지로 미얀마의 독립 영웅이다. 이 묘역에는 아웅산 장군을 비롯한 독립 투사들이 안장되어 있는데, 붉은 콘크리트 벽에 흰 별이 그려진 모습을 하고 있었다. 개산 거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독재 중인 군부가 독립 영웅들의 영혼을 억누르기 위해 '공구리를 쳤다' 고 한다. 이곳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암살당할 뻔한 아웅산 폭파사건이 있었다.

데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군부가 경찰을 동원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면발치에서의 묵념 정도만 겨우 허용하여 우리는 잠깐의 묵념 뒤 쉐다곤 파고다로 향했다.

쉐다곤 파고다는 쉐(금), 다곤(양곤의 옛 지명), 파고다(탑)의 뜻으로, '다곤의 금탑'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곳에는 부처님의 머리카락 8울이 안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 불발은 버마 상인 2명이 부처님한테서 얻은 것이다. 그들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뒤 세상에 처음 나아가셨을 때 만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이러한 불발을 대단히 귀하게 여겨, 사진 외에는 공개하지 않고 소중히 모시고 있다. 개산 거사님은 우리에게 이에 얽힌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를 들려 주셨다.

"이 불발은 버마 상인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머리카락을 쥐어뜯다가 떨어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쉐다곤 파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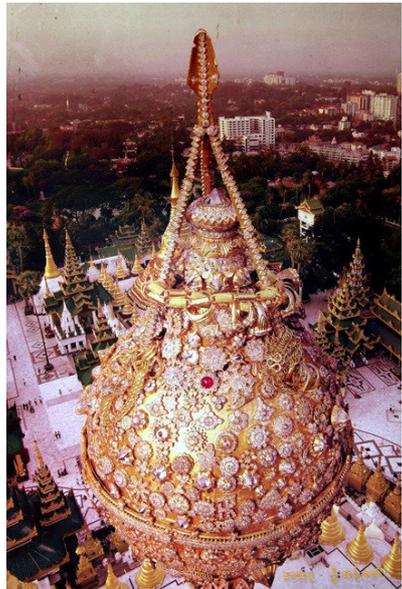
우리는 외국인들을 위해 마련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쉐다곤 파고다에 입장하였다. 5\$의 입장료를 내고 가슴에 스티커를 붙이고 들어갔는데, 이 스티커가 없으면 파고다를 관리하는 신도위원회에서 잡으러 올 수도 있다기에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붙이고 들어갔다.

만 평 정도나 된다는 쉐다곤 파고다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난 것은 파고다 경내의 보리수였다. 아쇼카(Ashoka) 왕의 딸인 상가밋타(Shangamitta) 공주가 인도 붓다가야의 보리수 가지를 가져와 심은 것이 스리랑카의 아누다라푸라에 있는데, 이 나무 역시 그와 같은 보리수로, 이곳 사람들은 이 나무를 국보 모시듯 한다고 한다.

쉐다곤 파고다는 높이 99m가 넘는 거대한 탑이다. 벽돌로 조성된 탑에 회칠을 한 후 직접 금판을 붙이거나 청동판을 붙인 뒤 개금하여 표면 전체가 온통 금으로 덮인 탑으로, 금의 양이 60,000kg에 달할 것이라는 개산 거사님의 설명이 있었다. 그 외에도 꼭대기에 76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등 수많은 보석으로 장식된 엄청난 규모의 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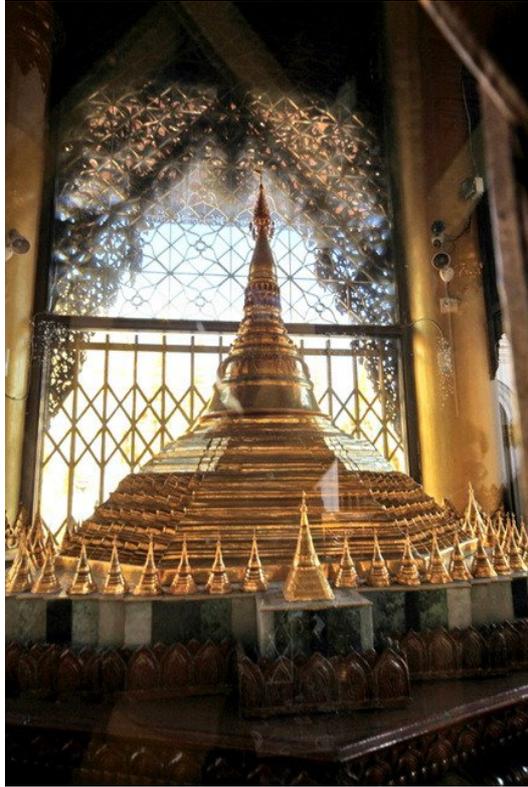
상륜부



76캐럿 다이아를 찾아보세요

처음 금을 보시하기 시작한 것은 신소부(Shinsawbu) 여왕이 자신의 몸무게만큼의 금을 보시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수많은 왕들이 2배, 3배의 금을 보시하였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귀걸이 목걸이 등의 귀금속을 기증하여 탑 꼭대기에 올려놓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거대한 탑이 완성되었다. 보시한 보석 등을 올릴 곳이 부족하여 쉐다곤 파고다 경내의 박물관에도 보관중이라 하니 이곳 사람들의 쉐다곤 파고다 사랑은 놀랄만하다고 하겠다.

Golden Pagoda는 쉐다곤 파고다의 별당 중 하나에 모셔져 있는 쉐다곤 파고다의 모형으로 순금으로 조성되어 있다. 안내판에 따르면 45인치(약 1.14m)의 높이의 탑으로 금 외에도 10캐럿의 다이아몬드 1개 및, 241개의 보다 작은 다이아몬드들, 1895개의 루비들 등으로 조성된 모형이다. 모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엄청난 물건이 아닐 수 없다.



골든 파고다

쉐다곤 경내에는 불탑의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과거의 3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치되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서방정토를 상징하듯, 서쪽에 모셔져 있다. 그 바깥쪽에는 회랑이 있어서 우기에도 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쉐다곤 파고다는 미얀마인들에게 24시간 개방되는 기도처이자 쉼터이자 생활공간 같은 곳이다. 실제로 연인들의 데이트나, 결혼을 앞둔 양가의 상견례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등 이곳은 단순한 탑이나 사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주말에는 흰색 옷에 검색 건장이 그려진 기도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주 오는데, 이들은 주로 기도 동호회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한다.

불탑 주변에는 백옥으로 된 조그마한 불상이 드문드문 있다. 그 옆에는 은잔이 몇 개 놓여 있고, 그 아래에는 물이 담긴 큰 그릇이 있어 그 그릇으로 물이 계속 솟아나오게 되어 있다. 이 큰 그릇의 물을 은잔으로 떠서 불상 머리 위에 붓는 의식을 관욕식이라고 한다. 이곳의 전설에 따르면 자기 나이보다 하나 더 많은 숫자만큼 불상 머리에 물을 부으면 장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우리들도 불상 머리에 물을 붓고 장수를 기원하였다.

그 옆 별당에는 화교들이 기증한 옥 불상이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는 112캐럿이나 되는, 가격으로 환산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크기의 자연산 루비가 이마 띠 정 중앙에 장식되어 있다. 이는 화교들의 경제적 자존심을 반영하였다고 한다. 이 불상 주위 창살 안으로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보시하였는데, 한 차례 수거한 뒤라서 지금은 바닥에만 지폐가 드문드문 보인다.



옥불상

한 별당의 불상 옆에는 공작과 토끼가 각각 좌우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일월을 상징한다고 한다. 즉 공작은 해, 토끼는 달을 상징한다. 양곤에서 뿐만 아니라 미얀마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쉐다곤 파고다 경내에는 탑 주변에 72개의 크고 작은 별당이 있다. 이들에는 불상 등이 모셔져 있는데, 각 지방 장관 및 그 곳의 주민들이 금 등의 보석을 기증하여 별당 하나하나마다 특색 있게 조성되고 있다.

쉐다곤 파고다의 한 쪽에는 우산을 쓰고 합장한 상이 있는데 이는 이 탑이 있던 싱구타라(Singuttara)라는 옛날의 조그만 언덕에 파고다의 터를 닮은 오갈라빠(Okkalapa) 왕을 기리기 위함이라고 한다. 개산 거사님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 빨리 지나치며 멀리서 가리키셔서 나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

오늘은 박물관이 문을 닫아서 박물관은 볼 수 없었다. 박물관은 금과 보석 등이 전시되어 있는 3층 건물로, 박물관을 열어도 이 모두가 공개되지는 않고 한 층만 공개된다고 한다. 유리관 안에 있어 바람이 통하지 않는데도 일 년 365일 내내 바르르 떠는 보리수 잎 모양의 것이 있다고 하는데 볼 수 없어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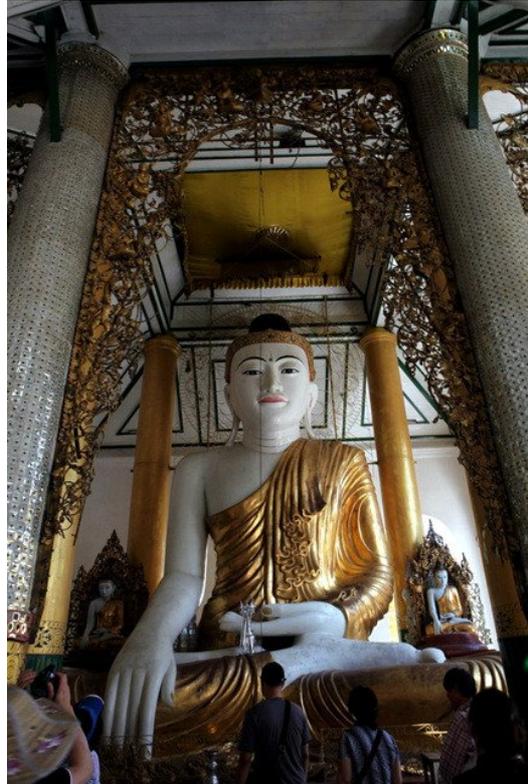
파고다 경내에 마하간다 종이 있다. 이 종은 영국인들이 대영박물관으로 가져가려 했으나 두께가 두껍고 무거워서 도중에 물 속에 빠뜨렸다고 한다. 미얀마인들은 영국인들에게 자신들이 꺼내면 가져가지 말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영국인들은 자신들도 꺼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꺼낼까 싶어 그들을 앞보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미얀마인들은 물 속에 잠수하여 대나무를 하나하나 종에 엮었다. 대나무를 엮고 또 엮자 부력에 힘입어 종은 떠올랐고, 미얀마인들은 종을 꺼낼 수 있었다. 영국인들은 약속을 지켜 이 종을 가져가지 않았고, 종은 결국 이곳에 모셔지게 되었다.

미얀마의 종들은 그 두께가 매우 두껍다. 때문에 작은 막대기로 가볍게 쳐도 소리가 잘 울려나온다. 쉐다곤 파고다 경내에는 민돈 왕이 보시하였다는 종도 있는데 길게 늘어진 줄같이 보이는 것들은 이곳 사람들이 공양한 긴 꽃줄기이다.

파고다 경내에는 재미있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일명 '이적의 나무' 이다. 이 나무는 둥치가 굵은 나무인데 이상하게도 꼭대기 쪽에서는 말라죽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하여 주변의 파고다들보다 결코 더 높이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 이 나무를 보고 이곳 사람들은 신령스럽다고 여겨 살아있는 목신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기도의 차원에서 즐거기를 비롯, 가지와 잎 등에도 빼곡히 글씨를 적어 넣었는데, 빈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글씨를 썼다.

그 옆 별당에는 더운 이곳의 기후를 반영한 불상이 모셔져 있다. 부처님이 더우실 테니 부채를 부처 시원하게 해 드리는 것이 큰 공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거대한 불상 위에 커튼처럼 된 구조물이 있고, 이에 이어진 쇠줄을 당기면 이것이 부채처럼 움직이게 된다. 이 불상은 손가락으로 가사자락을 살짝 잡고 있는 특징도 있으며, 계란형의 검은 돌이 바닥에 놓여 있는데 이는 기도가 영험할 것인지를 가늠해 보는 '할멧

돌' 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개산 거사님은 설명하셨다.



줄을 당기면 부처님께 부채를 부쳐준다

파고다 경내에는 오늘 문을 열지 않아 가보지 못한 박물관 외에도 사진실이 있어, 웨다곤 파고다의 상세한 모습,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명, 파고다에 관련된 역사 등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파고다의 꼭대기에는 사진에 보다시피 수많은 보석들이 장식되어 있다. 이 보석들은 아래에서 보면 너무 높기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사진실의 사진을 보고서야 크게 놀라고야 말았다. 76캐럿이나 된다는 다이아몬드가 중앙에 박혀 있고, 그 주변의 보석들도 놀랄 만큼 많이 있다.

파고다 안에는 우물처럼 파인 곳이 있는데, 이곳에 불발 및 유물 등이 안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 안에는 불발 외에도 부처님 생전에 쓰시던 바리때와 가사 등도 모셔져 있다고도 하나 확인된 바는 없는 사실이라 한다.

파고다 보수에 사용되는 대나무와 줄, 그리고 스님들이 보수된 파고다 제막식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진실에는 황금으로 된 소라 모양의 법라 사진, 가사가 모두 루비로 장식된 작은 불상 등등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웨다곤 파고다 경내의 별당 중 거의 마지막으로 본 곳은 용왕이 부처님을 호위하는 별당이었다. 불상 앞에는 작은 배 모양의 금속 욕조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안에 물이 담겨 있었다. 이 물을 아픈 부위에 찍어 바르면 그 부위의 병이 호전된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 우리는 목, 손 등 드러난 부위에 얼른 물을 발랐다.

지금까지의 것들 외에도, 중앙의 불탑 및 주변의 수많은 별당들 중에는 시간상 미처 다 보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보고 왔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웨다곤 파고다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다. 웨다곤 파고다 참배를 마친 뒤 우리는 부처님 진신 사리 친견 행사를 하려고 오전 11시에 도착하기 위해 까바예(Kaba Aye) 파고다로 향하였다.

2011년 1월 28일, 29일/ 글쓴이 류연식 / 양곤

까바에 파고다는 '세계 평화의 탑' 의 뜻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사리불, 목련존자의 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곳이다. 미얀마 종교성 관료가 사리 친견 행사를 직접 진행하다 보니, 그 과정이 대단히 딱딱한 형식적 절차였다. 우리는 까바에 파고다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의사항을 숙지한 채 조금은 긴장된 상태로 그 곳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부처님 사리 등을 대단히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파고다 내의 철창문을 열고 들어가면 금고가 있는데 그 곳에 사리를 보관 중이었고, 사리함은 투명하게 제작되어 사리를 눈으로만 볼 수 있게 하였다. 2중, 3중의 보관으로 철저함이 느껴졌다.



까바에 파고다

사리 친견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처음 들어가서 우리는 다같이 3배를 올렸다. 그리고 2명씩 나아가 호계합장을 하였다. 그러면 양쪽에서 2명의 머리 위에 큰 쟁반 하나를 얹고 '따도, 따도' (찬탄한다, 찬탄한다의 뜻) 하면서 마정수기(摩頂授記)를 준다. 우리는 쟁반을 내린 뒤 관례상 한 사람당 5\$ 정도를 보시하고, 사리를 보았다. 종교성 관료는 사리를 돋보기로 보여주며, 우리말로 부처님 사리, 사리불 사리, 목련존자 사리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2명씩 사리를 모두 친견하면 부처님 사리를 등지고 앉아 단체사진을 찍었다. 이후 회장님이 앞으로 나가 관료와 악수를 나누며 기념품 엽서를 건네받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우리는 사리불 사리 3개, 부처님 사리 5개, 목련존자 사리 1개를 차례로 돋보기로 본 뒤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나왔다. 종교성 관료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꽃 한 송이씩을 선물로 주었다. 그 뒤 사리는 금고 안으로, 우리는 철창 밖으로 나와 파고다 안을 한 바퀴 돌아보고 까바에 파고다를 나왔다.



사리 친견

오늘의 마지막 성지 순례 코스이자 미얀마 성지 순례의 마지막 코스를 장식했던 곳은 마하시 수도원이었다. 이곳은 학승이자 수행승으로 유명한 마하시 큰스님이 계시던 곳이다. 이 곳에서 스님은 위빠사나 수행을 가르쳤다. 스님이 남녀 귀천도 차별하지 않고 가르침을 베푼 것은 지금도 귀감이 될 정도로 훌륭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큰 가르침 덕에 수많은 제자 수행자들을 낳았고, 이 수도원은 규모의 확장을 거듭하여 부속 건물만 100여 채가 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얀마 국내에 500여 개의 분원, 세계적으로 38개의 분원이 마하시 스님의 상좌 스님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마하시 스님은 내가 태어난 1982년에 입적하셨는데 당시 따르는 신도 수가 1000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스님이 흑시라도 반정부 시위를 하면 어찌할까 두려워서, 이를 염려한 군부가 스님을 독살하였을 것이라는 설까지 나돌 정도였다고 하니, 그 영향력 또한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산 거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훌륭한 상좌 스님들이 모두 분원을 차려 나가시는 바람에 현재는 이 곳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마하시 수도원



마하시 스님

우리는 마하시 스님의 생전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 올라가니 스님이 쓰시던 선방에 불상이 모셔져 있었다. 그 안쪽에는 생전에 쓰시던 침실, 서재, 경행을 위한 긴 복도가 차례로 있었다.

마하시 스님은 평소 3시에 기상하여 제일 안쪽 긴 복도에서 경행을 하시고, 4시부터 5시까지는 참선 수행을 하셨다고 한다. 지금도 마하시 스님의 기를 받아 수행해보려는 수행자들이 이곳을 찾아온다고 한다. 침실에는 마하시 스님이 쓰시던 진공관 라디오, 다이얼식 전화기 등 생전에 쓰시던 물품들을 고스란히 보존해 놓고 있었다.

2층에서 내려와 우리는 마당의 공양간을 구경했다. 마하시 수도원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엌같은 곳이었다. 그 곳에서 개산 거사님은 고수풀을 집으면서 '향신료인 고수가 이곳 음식의 끝입니다. 수행에서 깨달음의 끝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뒤 '깨달음의 끝은 또 다른 의정이라' 는 말씀을 하셨다.

이로써 성지 순례 일정은 끝나고 우리는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였다. 점심은 UN이 있었다는 인터내셔널 호텔 건물 1층에서 쌀국수를 먹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세도나 호텔에서 마지막 집을 챙겨 나왔다. 오후 일정은 양곤 시내 백화점 방문과 도심지의 차이나타운을 갔다 오는 것이었다. 백화점은 영어로 Super Mart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곳이었다. 1층에는 의류 등 수입 물건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백화점을 한 층에 압축시켜 놓은 듯 했다. 이곳 경제 사정상 부유층이 찾는 매장이라고 한다. 2층과 3층은 상대적으로 서민적인 곳이라고 하는데, 미얀마 물건들이지만 전통의 물건들이 아니어서 미얀마 도심의 현대적인 분위기가 났다. 마치 한국의 마트나 백화점을 연상케 하였다. 난 별로 살 것도 없었지만 그나마 달러를 받는 매장이 적어서, 모두들 이곳에서는 물건을 많이 사지 않았다.

차이나타운은 양곤의 중심인 솔레 파고다 근처에 있었다. 양곤은 솔레 파고다를 중심으로 지어진 계획도시라고 한다. 지금은 마칩 개금 공사 중이라서 돛자리 같은 것으로 덮여 있었다. 개산 거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대나무 등으로 아시방(일본 말인 듯)을 짠 뒤 돛자리 같은 것으로 덮어 비바람을 막고 그 안에서 개금 등의 작업을 한다고 한다. 양곤의 중심가 답게 차들이 많았고, 차이나타운의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다. 우리는 주로 과일, 생선등을 파는 식료품 시장을 걸었고, 중간에 중국식 절에도 들렀다.

과일 가게에서 우리는 두리안과 잭프루트를 사서 먹었다. 두리안은 제철이 아니어서 맛은 크게 좋지 않았다. 기름기가 많은 것이 과일보다는 부침개를 씹는 느낌이 들었다. 냄새는 들던 대로 고약한 편이었다. 잭프루트는 새콤한 것이 두리안보다 내 입에는 더 맞았는데 가격은 두리안이 훨씬 비쌌다. 이곳은 저장 기술이 발달이 덜 되어 두리안은 제철이 아니면 주로 수입해 온다고 한다. 비싸도 두리안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팔린다고 했다.



두리안

두리안과 잭프루트를 먹으며 걷다 보니 중국식 절이 있었다. 미얀마의 여타 파고다들과 비슷하게 불상도 있고 했으나 한자로 된 현판이 많았고, 불상 등의 모습도 웬지 중국풍의 느낌이었다. 또한 신발을 신고 들어갔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중국식 절을 나와서 다시 시장으로 나와 생선, 계, 야채, 고기 등 수많은 물건들을 살피며 좁은 길을 열심히 지나갔다. 중심가의 시장답게 사람들이 많아 매우 복잡했는데, 키가 크신 개산 거사님의 걸음이 빨라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다.

다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뜻밖의 일을 당했다. 교통사고가 난 것이다. 우리가 타고 가던 관광버스가 커브를 돌아 들어가는데, 옆길에서 들어오던 승용차와 측면을 살짝 부딪히고 말았다. 접촉사고였기 때문에 충격은 거의 없었고, 차들도 둘 다 거의 손상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우리와 부딪힌 승용차는 고급 수입차였고, 게다가 새 차였다. 승용차 안에는 뒷좌석에 한 젊은 여성이 앉아 있는 듯 했고, 운전을 하던 젊은 남자가 선글라스를 낀 채 나왔다. 우리 버스에서 현지 버스 기사분이 내려 승용차 운전자와 대화를 나눴다. 개산 거사님은 우리가 주문했던 울금을 받으러 가던 길에 마침 그 가까운 곳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딱 본김에 제사지내듯 버스에서 내려서 울금을 가지러 갔다가 오셨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곧장 공항으로 가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기에 빠른 해결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개산 거사님이 울금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도 지지부진하게 일처리가 끝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잠시 후 경찰이 와서 사진을 찍고 상황이 종료되어 다행이었다. '시추에이션 빼비' 개산 거사님은 상황 종료라면서 웃으셨고, 우리는 미얀마에 온 첫 날 처음 밥을 먹었던 'Koo's 한식당' 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양곤 공항으로 향했다.

우리는 다시금 양곤에서 방콕으로, 방콕에서 인천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 올 때처럼 홍콩에서 환승하는 절차가 있나 했더니 다행히 없어서 상대적으로 편하게 도착하였다. 방콕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한 80% 정도는 탄 듯 했다. 특유의 시끌시끌한 분위기에 여행의 끝을 비로소 실감했다. 누군가 말했다던가, '여행은 돌아오기를 기약하기에 즐거운 것이다.' 라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것이 썩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행은 여행일 뿐, 갔으면 돌아오는 것이 여행인 듯 싶다.

이 글은 설 명절을 지난 후 완성하였다. 백승환 선생님의 멋진 사진들과 개산 거사님의 훌륭한 가이드 내용을 마치 내가 찍고 생각한 것인 양 마구 적어놓은 듯하다. 이번 여행은 회장님 말씀대로 볼거리, 잠자리, 먹거리, 가이드, 동행, 날씨 등이 만족스러운 좋은 여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여행을 잘 다녀오고, 이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신 금강불교회 회원님들과 기타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줄필을 마무리하고 싶다.

황금탑의 나라 미얀마

블로그 보리송이의 방 http://blog.daum.net/borisu_gim

저자 금강불교회

발행일 2011.02.13 00:04:09

 블로그